

월간 충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78 4월호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민 13:30)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늘 바라던 마음의 고향인 가나안 땅의 바로 남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어서 여기서 북쪽으로 그냥 공격해 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은 점령되는 곳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인 가데스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가나안 탐지령을 내리셨고 그로부터 40일이 지나 열두 정탐군은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가데스로 돌아와 정탐보고를 하였습니다. 열두 정탐군이 수집해 온 정보는 공통성과 객관성이 있어 믿을 만했습니다. “그 땅에는 젃과 꿀이 흐르고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튼튼하고 크다”(민 13:27-28)는 것 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비교하면 마치 황소머리에 메뚜기 같다고 했읍니다(민 13:33).

그런데 이 객관적인 같은 사실에 대하여 열두 정탐군의 『행동결정』은 달랐읍니다.

먼저 두 정탐군은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민 13:30)고 서둘렀읍니다. “홍해와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도 정복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가데스까지 인도해 왔겠는가?” 이것이 두 정탐군이 하나님을 믿고 『능히 이기리라』고 외친 정정당당한 이유입니다. 덮어 놓고 『능히 이기리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머지 열 정탐군은 말하기를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오합지졸의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가나안 거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수가 많고 힘이 센 가나안 군대와 수가 적고 약한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처음부터 상대도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은 두령이면서 같은 날부터 같은 기간에 같은 땅을 정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정탐군만이 『능히 이기리라』고 외치면서 올라가자고 했읍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관찰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열 정탐군과 같이 높이 쌓은 성과 장대한 거민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전하는 말 가운데는 다른 열

정탐군이 잊어버린 말이 하나 들어 있었읍니다. 즉 『여호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젃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민 14:8-9).

가나안 정복의 길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열두 정탐군이 꼭같이 인정을 했읍니다. 신앙의 길은 고난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고난을 보는 사람은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고난보다 크시고 또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가 없는 곳이었읍니다.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을 때 『능히 이기리라』는 필승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적인 열 정탐군은 말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민 13:33)라고 했읍니다.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누구나 이렇게 비굴해질 수밖에 없읍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나안의 그 충실한 포도송이를 보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더라도 믿지를 못합니다(눅 16:30-31). 그러므로 자기를 메뚜기와 같이 생각하는 『패배주의』는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원수입니다.

우리의 생애에는 누구에게나 가데스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열두 정탐군은 있습니다.

우리교회는 지금 이렇게 해야 하느냐 저렇게 해야 하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심각한 순간인 가데스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복의 기관인 성전건축, 전국일꾼을 키워야 할 교육관건축,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선교관건축이란 약속된 문제를 정복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가데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금년은 우리교회가 해외선교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서, 특히 4월에는 선교대회를 갖게 됩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자고 이미 일곱 선교사를 파송했읍니다.

그런데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복한 땅 평양에서, 도처에서 백두산 소나무 적어 예배당 짓고 선교대회를 할 날이 과연 있겠는지! 이성적으로 복한 실정을 탐지해야 합리적으로 결정하려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 보면서 복한 땅을 볼 때에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주 찬>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4월의 행사 ■

- 2일 / 정기제직회 · 재정위원회 · 중등부 헌신예배
 9일 / 남전도회 · 권사회 · 산업전도회 · 월례회 · 남전도회 헌신예배
 16일 / 여전도회 · 재정위원회 · 출판위원회월례회
 23일 / 구역권찰회 · 전도위원회 월례회 · 여전도회 헌신예배
 24일 / 교육위원회 월례회의
 25-30일 / 증현선교대회
 30일 / 해외복음선교회 월례회

■ 4월호 차례 ■

- <권두언> 능히 이기리라 / 주간 2
 <이달의 말씀> 선교란 / 김창인 목사 4
 <이렇게 말한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6
 <특집 :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① 우리들의 문제들 / 박종화 8
 ② 성실성 문제에 대하여 / 정관웅 9
 ③ 우리의 이상에 대하여 / 성주진 10
 ④ 학문(공부)에 대하여 / 장주영 11
 ⑤ 효도와 경로에 대하여 / 김종호 12
 ⑥ 예의 범절의 문제 / 박영희 13
 ⑦ 이성교제에 대한 문제 / 김수진 14
 ⑧ 결혼에 대한 문제 / 신성덕 15
 ⑨ 어느 것이 올바른 신앙상태인가 / 지경애 16
 <쉽게 풀어 쓴 기독교 교리 ②>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 이성근 목사 17
 <1200자 칼럼> 신앙과 생활, 몇가지 생각들
 / 오태웅 집사 18
 <찬송가 감상 ③> 빛의 사자들이여
 / 김중석 전도사 18
 <책소개> 성령과 교육 / 이승근 전도사 19
 <도서정보> 2, 3월 중 구입한 도서 19
 <시편에서 즐기는 주간의 만나> 20
 <해외선교 소식> 해외선교부의 활동계획 22
 <구역소식> 21
 <구역장노우르트> 해외에서의 교회 선택문제
 / 백성룡 목사 21
 <독후감>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고 / 성기주 23
 <독후감> 끝없는 가늌을 읽고 / 김연이 24
 <신앙수필> 기도의 응답 / 조현명 장로 25
 <구역공과> 성경전체를 7년 과정으로 26
 <교회 뉴우스> 32
 <편집후기 · 광고> 34
 <사건으로 보는 이모저모> 35
 <실로암 못가에서> 36

제 6 권 제 52 호

월간 증현

증현교회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선 교 란

성경/마 28:19-20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여러분과 저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양심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신성한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국을 건설하는 일이니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1. 선교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선교나 전도나 하는데, 뜻을 같지만 조금 구분하여 말하면 전도는 국내에 같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선교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교한다 전도한다 할 때, 이것은 한 마디로 전쟁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악마와 더불어 싸워서 악마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사를 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입니다. 싸움이므로 선교는 힘줄고 위태롭고 하기 싫은 것입니다. 전쟁은 꼭 이겨야 합니다. 지면 생명도 재산도 자유도 깎탈립니다. 교회는 악마와 싸우는 전쟁에서 꼭 이겨야 합니다.

또 선교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둘째로 선교는 예수님의 부탁이십니다.

셋째로 선교는 성령님의 권면이십니다.

네째로 선교는 지옥에 간 영혼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지옥에 간 영혼이 전도해 달라고 부르짖는다니 좀 이상합니까? 누가복음 16장에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옥에 간 그 부자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를 내 고향에 보내어 내 형제 다섯에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여기에 안 오게 해 주세요" 하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선교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첫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늘의 권세와 땅의 통치권을 다 갖고 오셨으면서도 전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특별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죄로 매달려 있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마귀와 싸우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오직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성령을 충실히 받으시면 중언이 되리라(행 1:4-8)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둘째는 여러 시험에 합격하여야 됩니다.

대학에 다니는 것이나 취직하는 것도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합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가지 시험을 치르시고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마 4:1-17).

첫째 경제문제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땅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문제 돈문제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이 일로 낙제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먹고 입는 문제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생기면 자족하게 생각하나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욕심이 점점 더 커져서 돈을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백만원쯤 쌓아 놓으면 2백만원쯤 더 쌓으려 합니다. 이 욕심은 지구덩어리를 뭉땅 먹어도 아이고 배고파 하는 괴물입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 나라가 전쟁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 개인이 싸움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 백성이 나라를 팔고,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 예수님도 팔아 먹습니다.

가릇 유대를 보세요.

신자는 돈을 모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힘써 땀흘려 모아야 하고, 돈을 써야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기있게 깨끗하게 써야 됩니다. 돈도 잘못 쓰면 아들딸을 불량자로 만들게도 됩니다. 돈문제에 낙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명예문제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인기전술을 쓰라고 명예문제에 대한 시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명예를 탐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내가 좀 잘한 것, 내 아들딸이 좀 잘한 것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못 견뎌니다. 조금 잘한 것은 많이 잘한 것처럼 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잘한 것까지 내가 잘한 것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선교사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가 억울함을 당할 때 변명하려고만 하면 안됩니다. 헛된 자랑으로 거짓 선전으로 일시적 명예를 얻는 것보다 잘한 것을 말하지 못하는 바보로 취급을 당하는 것이 장래성 있는 합격자입니다. 우리는 숨어 있을 줄을 알아서 명예시험에 이겨야 됩니다.

세계 타협문제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도 받으신 시험입니다. 배는 바다에서 필요합니다. 배는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집니다. 그러나 배가 바다에서 필요하되 바다의 물이 배어들어 온 배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바닷물까지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악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해서는 안될 일을 합니다. 교회는 악마와 타협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일본시대에는 교회가 기독교단을 만들어 일본 귀신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교회가 기독교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어 김일성에게 아첨합니다. 남한에서는 자유당 때 누구누구를 대통령·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기독교선거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교회가 정치도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큰 시험을 앞으로 선교사로 나간 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야 됩니다.

3. 선교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가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생명을 바쳐 돈보다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늘 생명을 사랑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 나도 저 불쌍한 생명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든지 가기로 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째로 십자가의 고생을 작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고생을 만날 때 도망가지 않고 비루해지지 않으리라, 고생 앞에서 능히 설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네째로 하나님만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은 세상이 날 버려도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만 믿고 누구 앞이나 당당하게 서는 권위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로 면류관 받아 쓰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잠깐 있다가 죽는 세상인데, 죽으면 무엇을 했는가 물으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서를 바치고 그 때에 면류관 받아 쓰기를 소망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4. 선교사의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로 감사의 생활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는 강도가 안되고 지옥갈 영혼을 건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구나, “아,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둘째로 인내하는 생활을 합니다.

피로와도, 역물해도, 가난해도, 감옥에 갈 때도 한 없이 참아야 합니다. 세상에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으로서 참을 인(忍)자 없이 해내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전도자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아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귀머거리인 것처럼 병어리인 것처럼 참고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품고 낙심을 모르는 인내하는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세째로 봉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너는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생활입니다. 내 몸 지체 중 몇가지가 부서져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에게도 봉사합니다.

네째로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일을 마쳐 놓고 기도합니다. 아침 집을 떠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리에 누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자신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거절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전도합니다.

여섯째로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고,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했고의 「내가」가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나는 숨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약자를 강하게 만듭니다. 죽음 앞에 웃음을 가지는 소망을 줍니다.

5.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와 백성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선교사를 보내어 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도 감정도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내 아들 군대에 보내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이 있을가요? 하물며 우리가 선교사를 전쟁터에 보내어 놓고 기도를 안하겠습니까.

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보내고, 총도 탄환도 보내 줘야 싸우겠지요. 그러므로 선교사를 보냈으면 기도를 해야 하고 물질을 보내어 생활하게 하며 활동할 수 있게 위해서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하면 그 시간에 나 자신이 벌써 은혜를 받습니다. 선교사를 위해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리하여 선교하는 개인이, 가정, 교회가, 민족이 심령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으며 악마가 손 못대는 국방의 복을 받습니다. 그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눈감고 주먹구구로 하는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원컨대 여러분은 선교사업에 다 참가하여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매주일 3부 예배 설교)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아세아방송(1570kHz)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영혼의 영양을 섭취 않기

김 재 창 목사

(부목사 · 노년부지도)

물음 / 교회나와 예수를 믿은 지가 꽤 오래되는데 나는 왜 남들처럼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데 혹시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지요? 생각다 못해 이처럼 문의합니다.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갓난 어린아이는 젖을 꼭 먹어야 되고 또 젖을 떼 다음에는 밥을 먹으면서 튼튼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신령한 도의 젖을 잘 먹고 영혼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섭취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성요소가 육체와 영혼 두가지이기 때문에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고 영혼은 성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과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마 4:4)고 두가지 양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것이나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그는 결코 건강한 어린이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나약하고 병적인 어린이는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부모의 탄식감이 될 것이며 자기 자신은 불행과 고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는 두가지 면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죄와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바보가 될 것이며,

둘째는 선을 알고도 행치 못하는 무능하고 무력한 신자밖에 못 될 것입니다.

이런 신자는 하나님의 탄식감이며, 또 교회의 문제인물이 될 것이며, 남의 걱정거리나 되고 또한 자기 자신도 불행과 고생을 영원히 면치 못할 것입니다.

건강한 신자, 그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계속 섭취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생명의 양식이라고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기초한 신앙 인격자가 되고 그 말씀을 표준하여 생활하고 충성할 때에 성령님의 많은 그리고 알찬 열매(갈 5:22-23)가 맺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자신은 크고 많은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행복한 신자가 되고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에게나 육체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빚어졌고 영혼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 또한 육체는 잠깐이요, 영혼은 영원하기 때 묻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육신의 양식인 밥보다는 영생하는 영혼의 양식인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육신의 양식을 먹는 시간을 한끼에 20분씩만 잡는다고 해도 하루 60분을 소모하게 되는데 보다 귀한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는 단 10분이나 20분을 내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 어찌 정상적으로 클 수가 있었습니까? 또 선한 일에 이바지할 만한 실력을 갖춘 건강한 신자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성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입으로 읽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과 같이 성경을 하루 석강씩 읽고 주일에는 주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날이니 두배의 밥을 더 주시는 줄 알고 다섯강씩만 계속하여 읽는다면 1년에 1199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성경 전장인 1189장 보다 10장이나 더 많은 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읽도록 된 신자라야 신앙생활의 참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는 선한 일에 청지기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일용할 양식으로 부단없이 읽을 수 있는 적절한 분량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성경을 읽는 성도는 개인의 신앙이 일취월장하게 될 것이며 건강한 신자가 되어 겉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고, 보람있게 일하는 천국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도 믿음의 부자가 될 것이며 교회적으로는 시대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니, 민족 복음화와 함께 국력이 한층 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우스 땅의 외인 용처럼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욥 23:12)” 할 수 있는 충현의 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 ... 4월과 5월에 걸쳐 월간 총현에서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또 교...
 ○...회의 웃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
 ○... 오늘날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자기들 스스로...
 ○...로의 육성으로 들어보고 또한 그와같은 문제들에 대한 어른들의 의...
 ○...견을 들어 피차간의 차이점과 공통점들을 생각해 보며 보다 발전적...
 ○...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 4월호에서는 제시된 8가지의 문제점들에 대해 젊은이들 스스로...
 ○...의 솔직하고 진실한 이야기들로 총제목「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로 꾸몄고, 5월호에는 젊은이들의 의견들에 대해 선배, 어른들의...
 ○...이야기가 나가게 될 것이다. ...
 ○... 바라기는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를 들여다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편집자> ...

젊은이의 문제들 - 그 전부

차례

- ① 우리들의 문제들 ;
 감정의 이중성을 안고 고뇌하는 우리들
박종화 <대학부 4년>
- ② 성실성 문제에 대하여 ;
 목표지향적인 자세로 준비기에 있는 우리들
정관웅 <대학부 4년>
- ③ 우리의 이상에 대하여 ;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되게
 하실 줄 믿어성주진 <청년부회원, 중등부 교사>
- ④ 학문(공부)에 대해서 ;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을 때장주영 <청년부회원, 중등부교사>
- ⑤ 효도와 경로에 대하여 ;
 효의 개념의 변형 없이 적용만을 문제삼을 수
 없어김중호 <대학부 4년>
- ⑥ 예의범절의 문제 ;
 웃어른의 삶의 과정 속으로 이어지는 우리들
박영희 <대학부 4년>
- ⑦ 이성교제에 대한 문제 ;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김수진 <대학부 3년>
- ⑧ 결혼에 대한 문제 ;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신성덕 <청년부회원, 중등부교사>
- ⑨ 어느 것이 올바른 신앙상태인가 ;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할 수 없어
지경애 <대학부 3년>

감정의 이중성을 안고 고뇌하는 우리들

박 중 화

(대학부 4년)

“사람은 이 세상에 두번 태어난다. 첫번째는 존재하기 위해서, 두번째는 생활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제일의 탄생은 신체적 탄생이라 한다면 제이의 탄생을 정신적인 탄생”이라고 루소는 말했다.

우리 젊은이들은 제이의 탄생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탄생에는 언제나 고통과 고뇌가 따르게 된다.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죽음을 각오하는 고통을 겪듯이 제이의 탄생인 정신적인 탄생을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20대는 인생의 큰 위기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만이 갖는 고뇌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크게 변혁하는 시기이며 뱀이 낳은 접질을 벗듯이 정신적인 자기 탈피를 할 때다. 성(性)에 눈뜨고 이성과 사랑에 충동을 느끼며, 인생의 의의나 사는 목적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되며, 나는 장차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의문을 자주 갖는다.

또 한때는, 특히 감정의 이중성 속에 휩쓸리기 쉽다. 모든 일에 대하여 큰 자신과 용기를 갖는가 하면 심한 좌절감과 실망감에 빠진다. 명랑과 우수 불안과 낙관 밝음과 어두움이 걸잡을 수 없이 교차한다. 우정과 대화를 원하면서 고독과 도피를 좋아하며 개방적이면서 폐쇄적이다. 높은 이상의 꿈을 지니면서 현실의 패락에 집착한다. 냉철한 로고스의 아들인 동시에 뜨거운 파토스의 딸이 된다. 이상과 현실이 서로 상주한다. 뜻은 높고 힘은 부족하다.

희랍 신화에 나오는 탄타로스처럼 하고자 하는 욕망과 할 수 있는 가능의 상극 때문에 마음의 초조를 느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모순이 대립하는 이원성(二元性)을 자기 내부에 지닌다.

이러한 모순의 대립 속에서의 고뇌를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첫째, 인생 문제에 관한 고뇌다. 지식인은 생각하면서 살고 살면서 생각한다. 우리 젊은이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품는다. 우리는 왜 사느냐? 인생의 목적과 의의가 무엇이나? 우리가 젊은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정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우주에 대하여 모든 자연법칙에 대하여 역사의 의미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또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그것이 인생에 관한 철학적인 물음이고 궁극적인 관심이다. 그래서 젊은이는 한때 철학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 젊은이는 인생관의 탐구와 확립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내 인생의 어디엔가 서야할 철학적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칸트가 이야기한 철학의 제문제들 즉,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물음은 다음 한가지 근본적인 물음 즉 「인간이란 무엇이나」에 귀결된다고 말했다. 이 물음에 분명한 대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철학책을 읽고 문학을 접하고 교수와 상담도 한다. 그러나 아무도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는다. 니체와 결론이 끝 나의 결론이 아니다. 카프카의 인생관이 끝 나의 인생관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관을 확립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곳에서 찾지 못한 답을 우리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 듣고 끊임없이 연구하여 깨달아 주님의 제자로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의 사명감과 장래에 대한 고뇌나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한 고뇌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인생은 자아실현의 무대요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장소다. 월급도 중하고 수입도 고려해야 하지만 나의 개성을 살리고 나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정열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사는 기쁨이 있고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직업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된다. 「자기의 일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카알라일은 말했다. 지극히 평범한 진리다. 자기의 사명을 자작하고 자기의 천직을 발견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하는 것이냐를 살리고 내 인생에 보람을 줄 수 있는나?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시기는 사명과 천직을 준비하는 시기나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무단한 노력의 과정이요 끊임없는 분투의 계속이며 피로하면서 싸우는 것이다.

세째는 이성(異性)에 관한 고뇌다. 루소는 「10세에는 과자에 움직이고 20세에는 연인 30세에는 쾌락 40세에는 야심에 50세에는 탐욕에 움직인다. 인간은 언제 오직 예지만을 추구하게 될 것인가」라고 말했다. 20대에는 사랑에 눈둔다. 연인이 그를 지배한다. 사랑은 인생의 흥취이나 잘 치르면 축복의 열매가 되고 잘 못치르면 불행의 씨를 만든다. 우리는 사랑의 어려움, 위험도 안다. 사랑의 고뇌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젊은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혜있는 사랑을 하기 위해 노력도 하고 있다.

그외에도 교회내의 청년으로서 교회내의에서도 부딪치는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도 매우 우리들을 당황하게 한다.

목표 지향적인 자세로

준비기에 있는 우리들

정 관 응

(대학부 4년)

사람은 성실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는 누구나 이 말에 공감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한 인간을 평가하는데에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추상적인 낱말 속에서 한 인간에 대한 평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모호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즉 가치개념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성실이란 낱말에 대해 이것이 어떤 객관성을 띠고 있는양 사실 개념적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재능, 교육, 기술, 지능 등과 같이 이것은 척도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성실은 그의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쪼개서 계획적으로 활용하느냐의 기준문제가 아니라 그 24시간의 방향이 과연 어디를 향해가고 있느냐 이다. 즉 가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성실의 개념이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기준으로서의 성실인 것이다.

이러한 전제 없이 성실의 가치판단의 개념의 도입은 현대 기계 물질문명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무수히 많은 성실한 사람(여기에서는 자기 일에만 전문화되고 충실한 인간)을 만들어 냈지만 현대 사회의 방향을 이끌어 주는 책임있는 사람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공부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부모님 속과 웃사람들의 심중을 괴롭히지 않는 것, 자기 일만 충실히 하는 것……이런 것들이 성실을 대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좁은 영역에서의 성실은 탈피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좁은 의미로서의 성실이 무엇을 위해 필요하며 그것의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명백히 깨달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자기 일만 한다고 해서 성실하다고 볼 수 없다. 옆에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도 나의 주어진 일에 충실한다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성실이라 볼 수 없다. 역사적인 현실에서 자기를 도피시켜 세상은 어지러워도 나만은 편하다는 것이 성실의 자세가 될 수 없다.

물론 이 세대가 자극적이고 환락적인 세대의 물질로 치달고 있는 이 때, 자기 일에만 충실한 것도 사실상 이루기 힘든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충족적인 일에 충실히 한다고 그것을 성실이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자기 주위의 상황이 요구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족시키는 일에 성실해야 할 것이다.

새 방향을 모색하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의 성실과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한 개인으로서 젊은이들의 의식을 갈로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줄 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생활 속에서 느낀 점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상 젊은이들의 성실성은 그 방향 감각의 상실 때문에 더욱 혼미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리스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형태에 대한 모범을 거의 생각지 않고 식사시간 중의 기도에서나, 또는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는 실정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셨다. 30세까지의 그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일에 충실했다. 물론 그리스도의 성장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는 지혜에 있어서 점점 넓혀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30세까지의 삶은 그의 공생을 위한 하나의 인간적인 성실한 삶이었던 것이다. 또한 그의 공생을 준비하기 위한 삶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생에서의 그의 외로운 투쟁, 고난의 삶, 밀바닥의 생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의 태도, 남들에게 참다운 평안과 희망과 구원을 주는 그 삶 속에서 한 인간의 모습을 지닌 분으로서 성실의 본연의 자세를 볼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 이러한 바울의 신앙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화하여야 한다. 그리스도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실의 올바른 좌표를 가진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내 안의 그리스도께서 생활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준비기에만 있다고 자신을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 중에 ‘큰 바위 얼굴’이란 소설이 나온다. 이 글 중 주인공은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며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남들에 의해서 자신이 바로 큰 바위 얼굴로 추대를 받는다. 여기에서 느끼는 바는 목표지향적인 성실한 삶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의 탄생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즉 그 마을에 꼭 필요한 인물을 기다리는 목표가 없었던들 주인공은 깨닫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그 마을에서 정말 필요하고 기다리는 인물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준비기는 바로 큰 바위 얼굴 탄생과 직결되어 있다.

많은 경우 공부, 신앙, 대인관계……이런 일들이 동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곤 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분리되어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시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직화된 사회속에서 나타내는 부족품화된 개인에서 탈피하고, 정확한 인간 즉 위에서 말한 효율적이고 개파른 인간에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성실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되게 하실줄 믿어

성 주 진

(청년부회원·중등부 교사)

1. 제기된 문제

요즘 젊은이들은 꿈이 없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현실에 너무 집착하여 꿈을 갖지 못하였고 꿈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과 타협하여 바래버렸거나 좌절 속에서 상실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다. 또 이 비평의 대상이 된 청년들 자신도 별 저항없이 그럴 것이라고 수긍하며 그렇게 된 원인을 외부의 환경이나 피치 못할 자기 내부의 문제로 돌려서 변명하기 일췌라고 덧붙인다.

나아가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청년들이 세상의 청년보다도 스케일이 좁은 것 같고 박력도 없으며 꿈도 그렇다고 한탄하는 말을 들을 때면 한 기독청년으로서 나도 모르게 슬퍼질 때가 많았다.

2. 「이상」의 이해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크리스찬이 꿈(이상)이 없다는 말은 모순되는 것 같다. 정상적인 신자가(그것도 기독청년) 꿈이 없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명제적(命題的)인 단언을 내리고 싶다. 크리스찬으로서 궁극적인 삶의 목표인 “하나님께 영광”을 물리는 이상은 누구에게나 있다. 비록 이해와 열심에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지상적(至上的)인 의무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 단기적인 생활의 목표도 있다. 하루하루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충만히 살며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겠다는 작오 등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의 “이상”이(“꿈” “비전”을 의미나 어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혼용하겠다.) 무엇인가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는 그것을 크리스찬의 삶의 궁극적 목표인 「주께 영광」이나 매일의 성실한 삶을 포함하지만 그보다도 “크리스찬이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계획)”로 정의하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이상을 이해할 때 많은 청년들이 뚜렷한 이상을 갖지 못하였다는 말에는 수긍이 간다.

3. 몇 가지 요인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독수리가 나래치며 올라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청년들의 퇴색한 꿈과 꿈의 상실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로는 계획성의 결핍과 장기적 안목의 결여, 그리고 추진의식의 박약을 들고 싶다. 그 혼란 조령모개(朝令暮改)와 작심삼일(作心三日)의 정신풍토, 장기적이고 개혁적인 계획들이 근시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사고에 의하여 끊임없이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역사의 잔재가 주위에 널려 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아직 청산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속에서 살고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청년들이 하나같이 독야청청할 것만을 바라는 것은 벽천 기대이다.

그 물로는 역시 신앙적인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께 갔던 어떤 부자 청년에게만 재물이 묻혀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금전적인 계산 위에서만 판단되고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나님의 관여 없이도 돈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또 빛이 있으면 그의 일을 잘 할 것 같은 분위기——이것이 청년들을 잠들게 한다. 또 많은 것들이 청년들의 눈을 땅으로만, 넘실거리는 파도로만 향하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이상과 계획, 그리고 그의 동행하심을 보지 못하게 한다. 한낱 핑계로서가 아니라 더 큰 신앙의 과실을 촉구하는 끈질긴 도전으로 이것들을 말하고 싶다. 지금은 참으로 깨어서 안목(Vision)을 가져야 할 때임을 절감한다.

4.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상

하이틴(high-teen)에 올라온 꿈을 꾸고 30에 꿈을 이룬 요셉, 20대에 저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 선생을 꼽아도 부러워한 적이 있다. 다 요셉 같고 칼빈처럼 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칼빈을 칼빈되게 하고 요셉을 요셉되게 한 달란트에만 눈을 주지 않는다. 달란트를 통하여 그들을 그들 되게 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더 큰 꿈”을 주시고 이루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믿고 주께서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가진 바 꿈을 더욱 새롭게 하는 청년들이 있음을 알고 싶다. 변색되고 상실한 것 같아도 꿈은 여전히 남고 새로와져서 그들을 생동하게 하는 동인(動因)이 된다. 이런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상, 갖고 있는 꿈을 다음 몇가지 특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이상의 구현성(具現性)이다. 우리는 이상을 하늘의 뜰 구름으로 보지 않는다. 이상을 위한 이상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이룩해야 할 이상, 그 꿈이 허황된 것 같아 보여도 주 안에서 가능한 그런 비전으로서 이상을 본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될 것으로 믿고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아무런 모순이 되지 않고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

세째,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 세상이 도피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할 많은 사람이 있는 곳, 변혁되어야 할 사회와 개혁되어야 할 문화 등이 있는 곳으로 본다. 우리의 이상은 고고(孤高)한 것이 아니라 평생의 헌신으로서 이루어야 할 목표로서 세상을 실현도장(實現道場)으로 갖고 있다.

지금쯤 주님 안에서 이상을 품은 청년들이 비상(飛翔)해야 할 때——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부름에 응하여 이상을 새롭게 하고 전교회와 합심하여 이를 이루는 그런 바램을 나는 갖고 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을 때

장 주 영

(청년부회원 · 중등부교사)

무기인도를 받은 두 죄수가 탈출을 하기 위해 한 명은 굴을 파고 다른 한명은 밧줄을 만들기로 계획을 꾸몄다. 그들에게는 감옥의 두꺼운 벽을 깎아 낼 연장과 밧줄을 만들 재료가 있을 리 만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목적달성을 위해 각자의 맡은 일을 매일 매일 조금씩 하였다. 벽을 파는 죄수는 남은 밤그릇으로 밧줄을 만드는 죄수는 옷의 실을 조금씩 뜯어서 만들었다. 손에 피가 나고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아도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고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해 나갔다. 그렇게 하기를 십몇년 굴도 어느 정도 뚫고 밧줄도 조금만 더 꼬으면 땅에 닿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 굴을 파던 죄수가 간수에게 발각되어 다른 방에 감금되고 말았다. 밧줄을 만들던 죄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신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죽고 말았다. 한가닥의 희망이었던 삶의 목적이 그 순간에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목적이 없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고 생을 개척하려는 의욕이 없다. 실혹,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그 목적이 자기 자신만의 것일 경우에 너무도 허무한 인생처럼 느껴진다.

도대체 공부들을 너무 안한다고들 한다. 공부하는 목적도 모른다. 그러나 요사이 학생들처럼 진학열에 불타 공부하는 시대도 과거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눈을 뜨면 공부요 한눈만 팔면 뒤편에서 부모들의 눈이 번쩍인다. 그들의 목적은 대부분이 오로지 일류 학교에 가야 하는 그것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회의 젊은이들이 일반적으로 생에 대한 패기가 없고 학생들의 진학열이 좋지가 않다. 왜 그럴까? 정말 공부들을 너무 안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와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을 몰라 그럴까? 아니면 교회만 잘 나오면 하나님 축복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실사일까? 난들 남의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마는 한가지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매년 입시 때가 다가오면 해당되는 각부에서는 시험을 몇 일 앞두고 응시자가 우선 신자로서 신앙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다는 의도와 또 배운 것만큼은 틀리거나 못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구하자는 뜻에서 기도회를 갖는다. 그때마다 약간의 거북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다. 대부분이 이들에게 시험에 붙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달라고 생각한다. 공부를 하지 않았으며는 마땅히 시험에 떨어져야 옳고 공부를 안한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할까 마땅하다고 느껴진다.

조금더 실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경험담을 표현하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 자신도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공부를 해야 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었다. 그러나 나에게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날이 온 것이다. 친구가 자기네 학교 기독교 학생회 집회가 있다고 같이 가자기에 따라간 것이 내 인생의 향로를 바꾸어 놓았다.

그 집회 마지막 밤 신앙간증의 시간이었다.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 하는 그들의 모습에는 진실성이 있었고 생의 진지한 자세가 보였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식과 젊음을 주님을 위해 바친다며 자신들의 계획을 말해 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뚜렷한 목적 없이 살던 나에게 간증시간 후 기도시간에 가슴속 깊숙이 들려오던 주님의 말씀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같은 시간과 젊음과 기회를 주었던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고 묻는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몰라 허비했던 지난 날들이 그렇게도 어리석게 생각되어질 수 없었다. 난생처음 자신의 잘못을 위해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 외에는 없었다. 학생의 신분으로 해야 할 것은 공부뿐이었으며 지식으로 돈을 벌어 불우한 환경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이끌어 주고 싶었다. 또한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었다. 그때로부터의 내 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공부에 미친 것이었다. 이러한 면은 공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일을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므로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을 어릴 때부터 깨우쳐 주고 스스로 깨닫게 할 때 도대체 공부를 안한다는 말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위해 공부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한없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마땅히 공부를 해야 할 신분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효의 개념의 변형 없이 적용만을 문제삼을 수 없어

김 중 호
(대학부 4년)

1. 서(序)

현대의 기계화된 사회는 우리 인간을 문명의 일개 부속품으로 타락시키고, 주인의 자리를 잃게 해 가고 있다. 인간 관계의 중요성은 상실되어져 가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배금주의의 팽창과 함께 물질문명의 지식이 발달되면 될수록 인간은 따뜻한 체온을 잃어갈 것이다. 인간은 의식에서 패배할 것이고 행동에서 시행착오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인간소의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며, 노스텔지어적인 인간회복도 난감해질 것이다.

인간의 인간다움을 가지는 것이 지금처럼 절실한 때도 없다 하겠다.

2. 본 론

1) 전통적 효와 경로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는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아 왔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생활 윤리를 지배한 것은 유교라 생각한다.

효는 인간의 근본적인 당연한 일로 생각되었다. 중자의 학설 중에 '각자의 몸은 자신의 것이면서 자신의 것이 아니고 부모의 유체(遺體)이다'라는 귀결이 있다. 이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나와 우리가 나오고 나와 너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결국 부모와 나를 동일시하여 부모의 뜻에 따르는 바가 효의 근원이라 설파했다. 그러므로 나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머리를 깎는 일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으로 되어 모든 일에 신중하였었다. 이런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나와 우리의 관계가 연결될 때 경로사상이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남의 노인을 공경하는 것도 바로 나에게 유체를 남겨준 부모를 통해서 확립된다. 맹자는 내 집 노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의 노인에게 미치게 되면 천하라도 손바닥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는 경로가 전전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양건으로 본 때 그 고전적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곳에서 효와 충(忠)을 동일시하게 된다. 이런 효를 현대에는 물론 무조건적 적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전통적인 대가족제도를 유지하는 길은 절대적인 권위의 확립이 필요불가결했었다. 그러나 이런 권위도 법률 이전의 도덕적 개념이었다.

아직도 이런 전통적인 유풍이 남아 있는데도 서구의 물결을 맞본 우리에게는 전통에 대한 합리성에 회의를 느끼게 되는 데에도 그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다.

2)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효의 종말은 도를 행하여 명(名)을 후세에 떨쳐서 부모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옛 사람들은 말한다. 물론 이러한 효의 시종(始終)도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나와 나를 동일시하여 출발하던 경로 개념도 수정되어질 여지가 많다. 이기주의적인 현대 사회에서 효의 개념의 변형없이 그것의 적용만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효를 배척하는 행위 이상의 것이 된다. 현대사회는 핵가족제도가 대가족제도에 대신해 가고 있다. 대가족제도에서는 어른이라 하면 무조건 순종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핵화된 가정에서 강제성을 띤 어른 공경이 어떤 의미를 지니리라는 예상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사회의 발전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와 함께 성장해야 하느니 만큼 교육에 뒤진 가족구성원은 현대사회에서 역기능을 발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웃사람 말에는 무조건 따르는 권위주의적 인간상의 육성이 소망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효의 개념 수용 자세는 각각 다르다. 아버지라 해서 자식을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거나, 자식은 자식대로 아버지를 낳은 거울정도로 생각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기주의 팽배 사회에서는 서로를 멸망시키는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효도는 부모나 노인을 경배하고 부모의 심신을 봉양함은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부모나 노인의 뜻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거스리면서도 옳은 것은 간쟁(諫諍)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로 본다.

오늘날 호주 상속자로서의 노인의 자적만이 문제가 된다면 그 사회는 가망이 없는 사회다. 요즘 가족법 개정 문제가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나마 노인의 지위를 인정해주던 법률마저 호주상속을 현 시대에 맞게 개정하려 하는 것이다. 물론, 이의 개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률이라는 차가운 재력으로 권리를 노인들로부터 획득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슬픈 일이다.

물론 가족관계만큼은 법률로서가 아니라 우애와 신뢰로 뭉쳐진 집단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효는 인간에게만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니나 로보트에게서 구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니다.

3. 결(結)

효나 경로가 결코 고리타분한 옛날의 낡은 사상이 아니다. 이의 실천은 현재에도 상큼한 인간의 맛을 느끼게 하는 '인간'에 대해 향수를 느끼게 하는 풍요한 생활기반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촉매제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개념이 상호신뢰와 존중의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는 인간다움을 지니기에 힘써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수많은 재산 앞에서도 우리는 참다운 인간끼리의 향수를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이다.

나를 잃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아는 노력이 시급하다. 부의 축적이 시급한 일이 아니다. 지쳐버리고 무기력한 인간이 되기 전에 우리의 가슴에 생수를 집어 넣을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이를 효와 경로사상에서 찾는다.



웃어른의 삶의 과정 속으로 이어지는 우리들

박 영 희

(대학부 4년)

이른 아침 창 밖에선 즐겁게 지저귀는 새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생동감 넘치게 피어나는 자연을 대하며 마음을 설레기도 한다.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여유조차 주지 않고 우리로부터 달아나는 시간의 빠름을 감탄하며 바라 볼 수 밖에 없는 때도 있다.

그렇게 만족스럽게도 또 그렇게 성실하게도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쉬움을 가질 때 우리는 벌써 자신이 원하는 삶에 세계 속으로 깊숙히 밀려 들어와 있는것을 보고 얼마나 당황하게 되는가?

아직도 나는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도리어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해 일종의 부담과 저항을 갖고 있다. 언제나 지극처럼 누군가의 보호와 지도 속에서 살 수 있을 것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나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요구되는 인간의 도리 속에 예의와 범절이 포함될 수 있는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강조해 내려왔고 그러기에 대두되는 문제 또한 심각한 것 같다.

「동방예의지국」이란 칭호대로 우리의 전통적 사상은 충성과 효도, 예의 범절을 높이 평가해 왔다. 미처 옳고 그른 것을 식별할 만큼의 여유도 갖지 못하고 웃어른이 시키는 것이면 순종해야 했고 또 진심으로 존경하고 받드는 마음보다 형식과 외례에 치우쳤던 점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전통과 교육이 우리를 효자와 충신과 그리고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 사회가 개방되고 외부의 사상과 교육이론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때 우리 사회는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을 갖지 못해 갈피를 못잡고 한동안 방황하게 되었던 것 같다. 아직 현재는 그 과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 왜냐면 예의와 범절에 대한 참된 개념과 그것의 가치에 대한 사상이 재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 문제를 과연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자제에 이상이 있는 것인지 아직 결론을 내릴 수가 없을 것 같다.

먼저 우리 젊은이들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절이니 예의니 하는 단어는 별로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절실하게 느끼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가끔 버스 안에서 어떤 집단 속에서 나이드신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열면 몇마디의 말이 오고간 뒤에는 으레히 「이자식 년 애비도 없냐?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뭘 잘했다고 대들어?」라는 말이 나오곤 한다. 그리고는 요새 애들 버릇 없고 제멋대로라는 푸념을 늘어놓는다. 물론 이것은 한 예에 지나지 않고, 더구나 이런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이므로 집단적으로 평가를 하는 때에는 무리가 있는 줄 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전통과 습관 속에서는 아래에서 위로의 예절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이치를 따지고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먼저 권위의식을 내세우려 한다면 중동적이고 감정적 해결밖에 날 수 없을 것이다.

간혹 어른들께 불손하고 불쾌한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상은 그들의 내부 속에서 그분들에게 반항하고 싶다가나 거부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 것이다. 여기엔 젊은이들의 미숙함이 있다. 가령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의 목적인 바를 자기의 생각하는 방향으로 소신껏 밀고 나가 해결만 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제삼자의 입장과 그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경을 쓰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로 사과할 때와 감사를 느낄 때 나타내야 하는 표현의 결핍을 들 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알던 때가 있었는데 하면 조금 커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부모 이외의 어느 누구도 감당해 낼 수 없는 자기 희생이란 것을 절감할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굴켜 삼켜 버리고 말았다. 참으로 못난 태도라고 자인하면서...

만약 내가, 옳다고 인정되어 내려온 어떤 틀과 격식 속에 들어 맞추려는 교육이 아니라 인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았었다면 그때의 나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단정적으로 내 입장은, 요즘 젊은이들이 안하무인이고 버릇이 없다고 가끔 어른들이 말하는 것엔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도리어 진심의 표현이 아닌 가식의 행위를 요구당할 때 저항감을 느낀다.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님과 웃어른들께 인내와 이해를 바라고 있다.

어쩌다 길거리나 버스 안에서 나보다 어린 학생들의 몸가짐이나 말투, 못사람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스스로 놀랄 때가 있다. 그들 틈에 섞여 있던 나는 어디로 가고 지금은 노파심을 가지고 그들을 우러하는 위치에 서 있는가 하고.

그렇게 발견된 나는 웃어른들의 삶의 과정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또한 알게 된다. 내가 젊은이 편이 아니라 어른의 입장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될 때는 언제쯤일까?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김 수 진

(대학부 3년)

이성교제에 있어서의 연애와 결혼이라는 주제하에 원고청탁을 받은 후, 단지 원고에 대한 생각만을 잔뜩 지닌 채, 2년간의 대학생활 동안의 여러가지 만남을 열심히 생각하며 첫시간 강의실을 향해 걸고 있었다. 갑자기 옆에서 “오늘 치마 입고 왔으니까 커피 사줘야겠는데”라는 1학년 초기에 항상 청바지만 입고 다니다가 처음으로 치마를 입었던 날에 커피를 사주며, 내게 낙제점수를 매기면서 놀려대던 장난기 많은 같은 과 남학생의 커다란 소리에 일른 고개를 돌렸을 때의 나의 잔뜩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인해 갑자기 그의 순진한 농담이 어색한 분위기로 되어 버린 것을 깨닫곤 커다랗게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곤 이때 느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가졌던 때를 기억해 냈다. 그것은 첫 미팅 때에 집에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파트너(?)를 이유없이 “쌀쌀하게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그 만남을 생각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깊이 간직하였던 나에 대해 한달도 못가서 웃음이 나왔던 기억이 있다.

대학부의 한 회원이 “동성동본이어야 열심히 사랑할 수 있다. 그대까지 이루어 질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 그 자체가 되니까”라고 한 말을 지나치면서 들은 기억이 있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이러한 젊은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떤 사회적 관습이나 규제 등의 제약 앞에서 스스로 진실하지 못한 노력으로 결국 더욱 악화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우리의 작은 감정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채, 만남 속에서 더욱 진실함이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그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 주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사랑만으로는 결코 영원할 수 없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장막 안에 서야 만이, 인간생활에서의 여러가지 내적, 외적 문제와 갈등이 영원한 만족과 깊은 잠잠한 평안으로 승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래 전에 한 시골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곳에서 다리 하나를 못 쓰는 아내와 병어리 남편을 보았다. 충격적이었다. 그리곤 많은 생각을 해야만 했다. 참다운 반려자에 대해,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들의 참다운 반려자는 아내는 신체적으로 완전한 남편을 남편은 완전한 아내를 만나야만 한다는 생각이, 그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회색의 그들의 표정과 활동을 회상하며 난 커다란 현실과 이상의 괴리속에서 답답한 마음을 지니고 성경을 찾아야만 했다.

여섯달 후에 나는, 그들은 한쪽이 완전했다면 상대방의 모든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알기에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참다운 반려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 나름대로 버리고, 또한 어느 누구도 사람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결혼은 없으며, 그래서 결혼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다. 두번째 방문에서 난 그 아내에게 주님의 참다운 평안을 전해줄 수 있었고, 이젠 그들에 대해 더 이상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 며칠 전 가이드포스트지에서 소위 엄청난 기사를 읽었다. 그들의 만남은 비록 그들에게 그렇게 많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도 엄청난 것이었다. 의심장과 가족하파로 숨을 쉬고, 팔다리는 모두 마비된 그야말로 정신만이 살아있는 사람인 빌과 자신은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앤의 진실한 사랑을 담은 결혼생활의 이야기였다. 병원전도를 다니다가 그녀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실한 인간의 사랑을 얻게 되었고 그녀에게 있어서도 죽음의 아닌 삶의 인생 그 자체가 되어졌기에 일곱 가지의 행복함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난 또 생각해야만 했다. 만남의 생생한 의미들…… 그리고 나름대로의 결론은 그 기사는 그렇게 엄청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진실한 사랑의 표현일 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에게 절실히 필요로 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뿐이기 때문이라. 결혼 전에 부모의 반대로 자살까지 시도했던 사랑을 지닌 인간적으로 훌륭한 두 부부가 10년도 못되어 사랑이 미움으로 되어 버린 것을 생각하며, 그 두 가정을 비교해 보면서 나는 주님의 사랑이 없는 인간의 에로스의 사랑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크리스찬이기에 결코 사람이 지은 거짓되고 초라한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에 영원까지 거할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을 감사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결혼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생활규범으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며, 축복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끝으로 “길은 여가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의 삶 속에서 —폐병으로 쓰러짐으로 인해 비신자인 훌륭한 인격자와의 결혼을 막고, 결국 오랜 투병의 과정에 있었을지라도, 그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반려자를 만나게 하였고, 그녀를 실제로 뿐 아니라 영혼의 주원으로서까지 이끈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하셨던—주님의 역사를 헤아려 본다.

그리고 나머지 일시적으로 인간의 눈에는 나쁘게 보이고, 괴롭기조차 할지라도 나의 근시안적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나에 대한 커다란 섭리와 계획을 저지하지 않도록, 단지 모든 만남 속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고 싶은 것이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신 성 덕
(청년부 회원)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은 누구나 한 번은 겪는 일이다. 누구나 하는 일, 흔한 것은 시시결형하게 여겨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 일은 예외에 속하는 것 같다.

청년들이 모인 장소에서 화제가 궁해지고 시큰둥하게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결혼 얘기를 슬쩍 끄집어 내놓으면 분위기는 금방 활기가 있어지고 공연히 들뜨기까지 한다. 수차례의 입시와 취직경쟁을 거쳐 사회생활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결혼하는 일에 관심을 모으는 것 같다.

주일이면 으레 교회에서 봉사할 줄 아는 믿는 청년들은 결혼에 관한 일에도 비교적 입이 무겁고 감정표현이 소극적이어서,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무관심한 듯 한데 정작 본인들의 속 마음은 주부의 결혼 소식만을 볼 때마다 편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혼은 수천년을 내려 오면서 결혼습으로는 엇비슷한 절차로 누구나 치른 일인데 속으로는 천차만별이며 결코 같지가 않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면서도 오히려 요긴하며 값진 것이 바로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인 것이다.

■ 선택의 지혜

사람의 일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인생이란 수많은 선택의 과정을 겪으며 성장하고 늙어 가는 것 같다. 어릴 적에는 눈을 현란시키는 각양각색으로 예쁘게 포장된 과자가 준비한 가게에서 한참을 망설이며 행복한(?) 고민을 했고, 학교 다닐 동안에는 학교의 선택과 전공의 선택, 졸업후의 직업의 선택 등 크고 작은 여러가지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해 왔다.

그런데 일생의 최로악을 함께 겪어야 할 배우자의 선택은 지금까지의 어떤 결정이나 선택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전공이나 직장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쉽게 바꿀 수도 있지만, 결혼이란 못마땅하게 여겨진다고 해서 첩판의 낙서처럼 싹싹 지워버리고 거기에서 새로 시작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에게는 부여하지 않으신 선택권을 주셨다. 이 선택권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고 권리며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택권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때 참된 행복과 웃음과 화평을 얻을 수 있으며 선택의 잘 잘못에 따라 인생 전체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지워 지는 것이다.

■ 선택의 기준

현 사회는 모든 면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문화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무사안일주의적인 사고가 만연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결혼관이나 연애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즘은 어떤 젊은층에서는 연애와 결혼을 구분하고,

연애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하지만 결혼은 중매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고 한다. 결혼 후보의 출신학교와 전공에 따라 결혼값(?)이 정해져 있어 그 기준에 따라 상대자를 고르므로 결혼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다 극히 실용적이고 편리하고 영리한 결혼관인 것처럼 보인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순종하는 생활을 배워 온 크리스찬 청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활이 참된 행복이라고 알아 왔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길을 택해야 하는 때에는 눈 앞에 보이는 현실과 현세적인 것만을 염두에 두게 된다. 인생의 참다운 행복이나 화평은 물질적인 풍요나 안정 속에 있지 아니하며, 인생은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금 뒤로 물러나 신앙인의 눈으로 삶의 큰 뜻을 생각하며 인생을 보게 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 나무만 들여다보며 숲을 보지 못했던 우매함을 벗어나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선택에 있어 성공의 비결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일을 다른 어떤 것보다 바꾸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 조화와 창조 능력

행복이란 좋은 만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우리를 위해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선물)로 여기게 될 때 두 사람은 올바른 인격관계를 가지게 되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강하지 못하며 많은 결정들을 지니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다. 두 사람은 장·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각자의 장점이 잘 조화될 때에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원하는 행복이나 기쁨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껴오듯이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에 있다. 작은 행위, 작은 감정에서 인간의 보다 큰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할 때 화평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끈적끈적한 인간관계가 밀집하게 되어 있는 결혼생활은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과 사사로운 감정을 지혜롭게 처리할 줄 아는 여유가 요구된다.

그리스도의 폭넓은 사랑에 바탕을 두고 상대적인 조화가 있을 때 우리들 자신은 불완전하고 결점들이 있지만 항상 화평과 새로운 창조가 있는 작은 낙원이 건설되는 것이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우린 판단할 수 없어

지 경 애
(대학부 3년)

사랑의 머릿수만큼 문화된 사상과 행동이 있듯이 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마다 각자가 지니고 있는 신앙상태가 다를 것이다.

가슴에 불이나 불은 듯이 뛰며, 소리치고, 박수치며 울고불고 하는 그런 자기 신앙표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속삭임인 양 차분한 신앙표현이 있고 천태만상이다. 이처럼 개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신앙상태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이 옳은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답이 있을까? 판단할 수 있을까?

국민학교 때의 일인가 보다. 시내 중심가에 살고 있던 우리 집이 도매시장에 접경 당하자, 커다란 공터가 있는 조금은 한적한 지금의 동네로 이사를 왔다. 그 공터는 어린애들이 싸움박질을 하며 놀든가, 심심치 않게 약장수들이 그들의 꼭대단(?)을 이끌고 약을 팔러 왔으며, 또 복날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우둔하게 살찐 어느 집 개를 잡든가 할 때 쓰이던 장소였다. 항상 시끌벅적한 곳이었다. 어느 날이다. 동네에 북소리가 들리고, 요란하길래 약장수가 왔겠거니 하고 생각하며 얼른 신발을 끌고 공터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웬 할아버지 한분이 가슴에다 커다란 북을 메고 뚝뚝치며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찬송을 부르는 사이사이에 간간이 들리는 말로는 잘 생각을 나진 않지만 “예수 믿으시오.” “우리가 살 길이요.” 구원……천국 하는 것 같았다. 어느 때 같았으면 곱게 이 둘러 서서 구경들을 하며 “어린애들은 빠져라” “알 사람 키 좀 낮춰.” 하면서 난리를 쳤을텐데, 어린 조무라기들만이 입을 헤벌리고 신기한 듯이 구경을 하고서 있을 뿐이며 한적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을 못 볼 것이라도 본 듯이 목아지를 땀땀이 세우고, 눈을 흰자위를 번득이며 제 빠른 걸음걸이로 지나쳐 버리는 것이다. 그냥 지나치는 것만이 아니다. 낮은 소리로 “미친 영감, 정말 돌았군”하며 중얼거리고 욕설을 토하며 사라졌다.

그 때는 잘 몰랐다. 나는 왜 그 할아버지 주위에 갈라진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시시껄껄한 약 나무령이를 팔던 약장수가 왔을 때보다 사람이 적었으며, 왜 동네 어른들이 그처럼 심한 말을 내뱉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엇 때문일까?

일마 전 임원수련회라 하여 수원 원동산기도원에 다녀오는 길에 전철역에서 우리 임원들과 선생님들이 둘러서서 북을찬을 불렀다. 우리는 너무나 신이 나고, 즐거워하며 찬송을 불렀다. 그 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지나가던 여자 몇몇이 하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다. “미쳤군 미쳤어.”

그래. 이제야 이해가 간다. 그때 그 할아버지에게 던지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무엇이었던지를.

강당에서나, 강의실에서나, 식당에서나 어디서건 조용히 눈감고 기도하던 친구가, 미팅을 가서 건 음식점에 가서 건 항상 전도하던 그애가 여를 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왔을 때 왜 등록을 안하고 야간 신학교에 가겠다고 대학교에 다니기를 거부(포기)했을까? 열에 들뜬 것처럼 과(科) 전체가 기독교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던 그애를 난 지금 생각한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우린 판단 할 수 없다. 그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만 아실 것이다.

이제 그런 문제점을 우리 자자들에게서 발견하고자 시도해 보자.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의 차이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서로에게 입히고 있는 것 같다. 대학부에 들어와서 이제 3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때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느끼고 보아왔다. 좀더 현실에 가까워진 것이리라. 우리들은 모일 때마다 많은 우리에게 던져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을 올려가며 토론하고, 비판하고, 수궁했다.

내 친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인 것처럼, 숨길 때까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이길 원한다. 서로의 다른 생활을 감싸주고, 안아 줄 수 있는 우리이기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이길 바란다.

약간의 실수로 늦게 시험장에 들어선 자기에게 그 학교 수험 규칙에 따라 시험장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친 젊은 교수와, 귀찮으니까 어서 들어가서 시험을 치루라고 말해 준 늙은이 노년 교수와 과연 어느 분이 옳았을까? 하며 요즘에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생활의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둘일 수도 있다는 모교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공감하며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간의 생의 방도는 둘일 수도 있다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뀔 수 있다고. 그런 마음 가짐이라면 외교적으로 자지가 옳다고 생각하던 것으로부터 탈피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신경을 써주고 상처는 주지 않으리라고 감히 말해 본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자기의 감정에 치우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자제력 없이 행동하지 않고, 뻔뻔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양면을 모두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원한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이 성 근 목사

(부목사·출판위원회 지도)

2. 사람이 만든 거짓 신들.

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자가 공경할 하나님은 되지 못한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일반사회에서 말하여 오는 「하느님」 혹은 「하느님」과는 그 뜻이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니 기독교신자는 이 창조주 하나님 밖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은 이 한분이신 창조주 뿐이십니다.

그러나 불신세계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신은 결단코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고 무엇이든지 사람보다 기이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로 생각이 되면 이것을 신으로 위하기로 작정합니다.

가령 죽은 자를 신으로 경배하는 것은 죽은 자는 산 사람이 가지지 못한 기이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혼을 무서워하는 것도 이 미신에서 생긴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도 그렇다면 소위 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더욱 거룩하여져서 차차 기이한 초능력을 나타낸다 하여 옛날 거룩하다는 소위 성인들을 신으로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라 하면 사람보다 굉장한 초능력을 가진 자인데 사람뿐 아니라 새든지 벌레든지 산 짐승 등 기이한 힘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곧 그것을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늙은 살쟁이나 늙은 여우와 큰 뱀과 큰 당지네나 무엇이든지 신으로 제사하며 산중에 큰 나무가 서서 있어도 그 나무에는 목신이 있다 하여 곧 그 주위에 새끼를 두루고 또 돌이라도 적은 것은 발로 차고 다니면서 좀 큰 바위가 있으면 곧 석신(石神)이라 하여 숭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 유명한 사람이 공경할 하나님은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숭배하여 오는 신은 참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라고 높여 제사하는 자인데 그 배반이 나라를 위하여 유공한 사람이며 또는 뛰어난 사람들을 후세 사람이 신으로 높여 제사하는 것입니다. 단군교의 단군을 섬기는 일이나 이순신장군이나 세종대왕의 묘지를 성역화하여 제사하는 일들은 저희가 나라에 공로가 있고 또한 특출한 사람이면 후세 사람이 그 공로를 생각하여 신으로 높여 제사하며 그밖에 역사에 좀 유명한 사람은 다 신으로 제사하는 일입니다.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의 공로를 생각하여 국민 일반이 그에게 향하여 특별히 존경하는 뜻을 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신으로 높여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못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도 사람이요, 죽은 후에도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이었던 자가 죽었다고 즉시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뱀이 여러해 동안 공덕을 쌓으므로 용이 된다는 옛말과 같이 사람도 살았을 동안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죽은 후에는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사람이자 하나님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요새 이 땅에서는 이런 유명한 사람을 후손들이 신으로 제사하는 일이 있으나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공화국에서는 백성이 투표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처럼 후세의 사람이 많이 모여 옛적 영웅호걸 중에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을 마음대로 하나님으로 선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일월성신이 공경할 하나님은 되지 못한다.

해와 달과 별들로 하나님으로 생각하여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를 해님이라 부르며 달을 달님이라 부르며 별을 별님이라 불러 인격화시켜 무슨 생각이 있는 것같이 여겨 신으로 높이니, 실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해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비취기 위하여 지어주신 불명이입니다. 참 중한 보배지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과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리므로 귀한 존재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불명이를 지어주신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고 도리어 그 주신 불명이를 향하여 손을 읊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가령 추운 날에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그 주인이 화로를 내어 주면 손님은 그 주인에게 감사하지를 않고 그 화로에다 대고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절을 좀 아는 사람이면 곧 그 어리석은 일을 깨달을 것입니다.

라. 사람에게 벌을 받는 거짓 신들

야만인들은 나무나 돌조각이 좀 이상한 것이 있으면 타치는 대로 모서 세우고 신이라 하여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냥을 하러 갈 때 그 나무뿔기를 향하여 그날의 일이 잘 되기를 빌고 나갔다가 다행히 얻은 것이 있으면 돌아올 때에 그 목신에게 예를 드리지만 불행히 그날 얻은 것이 없으면 그 신을 학대하여 무엇으로 결박해 두었다가 다음날 사냥하여 얻은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고 그렇지 못하면 때려부시겠다고 위협합니다.

사람이 신을 부수거나 없애는 일은 제 손으로 만든 신이므로 때리든지 없애든지 제 마음대로 할 것이지만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말이겠습니다.

170022 찬송

신앙과 생활—몇 가지 생각들

오 태 용

TV의 일요 뉴우스 해설 시간, 화면에 비친 광경은 너무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육교 밑에 피투성이가 된 중년의 사람이 고꾸라져 있고 그 주변에는 성경과 찬송가 등이 어지럽게 내동댕이쳐진 채 찢힌 모습이었다. 이어 TV는 카메라를 옮겨 인파가 밀려나오고 있는 어느 예배당 전문을 비추고 사건 현장과 연결을 짓는다. 교회에서 “질서의 하나님”이란 설교를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이라는 설명과 함께 “비운의 이 사람은 과연 죽어 어디로 갔을까?”라는 여운있는 한마디를 남기고 화면은 바뀌었다.

화제작 헤일리의 “뿌리”(Roots)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긴장시키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온다. 노예선전장, 노예 주인 같은 소위 독실하다는 신자들이 인간의 존엄 등, 인권(人權)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생활,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 성경은 그저 소설책처럼 읽는 것으로 끝나는 모양이다.

왜 사람들은 성경을 삼고하고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활에서는 읽은 대로 들은 대로 하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카오스(혼돈) 아닌 코스모스(질서)를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들은 말씀의 진리, 생활의 질서와는 어긋나게 살아가며, 더욱 비참한 것은 그것을 깨우쳐 줘도 변화할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100년이 된다는데 아직도 우리는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말씀을 공민불화하고 있는 것 같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제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라는 찬송이 입술의 찬송이 아닌 마음과 영혼의 깊은 찬송이 될 수는 없을까.

올해도 부활절을 요란하게 지킨 모양이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전 3일간 철저히 죽어지는 무덤의 역사가 없는 사람에게 부활이 무슨 부활이겠는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양화(良貨)가 악화(惡貨)에게 구축 당하는 이 사회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다. 어렸을 때부터 건성이 아닌 철저한 진리교육, 생활교육은 지켜야 할 것이다. 교회교육에서 이것이 실패하게 될 때 서두에서와 질적으로 비슷한 사건은 터지고 또 터질 것이다. 그럴 때 누가 가장 기뻐하고 누가 가장 슬퍼할 것인가?

찬송가 감상③

빛의 사자들이여 (새 612)

김 중 석 전도사
(제이성가대 지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세
진리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 비추세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세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추세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에는 때로는 아주 섹션한 곡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이 찬송이라고 생각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세(사자여)

이 찬송은 부르는 자와 듣는 자에게 아울러 힘과 용기를 준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할 때마다 두 손에 주먹이 절로 쥐어지며 복잡하고 흐려진 시야에 의(義)의 빛이 환히 비취 음을 느낀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처럼 이 찬송은 낙락하기 쉬운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다시없는 주제가요 군가(軍歌)라고 생각된다. 찬송은 계속 복음전선을 노래한다.

빛의 사자들의 복음의 빛 비추세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추세
빛의 사자들이여

현대의 기독교인은 자기 혼자 믿는 데 머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는 바야흐로 신령한 전쟁(戰爭)의 때임에 틀림없다. 이 찬송을 제창하는 젊은이들 속에 앉아 있노라면 우렁찬 찬송소리의 흐름, 병거가 되어 우리의 몸이 힘찬 소리에 태워져 나아가는 듯한 위압감을 느끼곤 한다. 그러다가 문득 “아! 노래는 노래라도 얼마나 다른가! 유행가와 이 찬송과의 차이란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노래란 그 사람의 생활을 반영한다. 정신이 건전한 사람은 건전한 노래를 부르며 심지어 여흥으로 부르는 노래라 할지라도 그다운 면모를 가지게 되어 있다. 빛의 자녀 빛의 사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항간에 떠나는 천박한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꼭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요컨대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덕을 손상함이 없는 노래이어야만 할 것이라는 말이고 또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격이란 것이 아니겠는가?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세
주 함께 하시겠네

이 찬송은 레비스(J.E. Lewis)가 작시하고 존스(J.E. Jones)가 작곡한 것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잘 알 수가 없다. 곡의 앞에 부분에 붓집을 많이 써서 섹션한 감을 고취했고 후렴에서는 당김음(Syncopation)을 많이 써서 현대 젊은이의 감작을 살렸다. 이런 점을 볼 때 19세기 말엽의 미국 찬송가인 것으로 본다.

◎ 도서 정보.....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제와 그밖에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2.3월 중 구입한 도서

1. 참고서 및 사전록

가. 브리태니카퀴서 : 대우출판사.

- ① 종교의 의미 : 코클러 존저(홍정식 감수)
- ② 현대의 예술 : 맥밀렌 로이저(양병택 감수)
- ③ 현대의 사회 : 아롱 테이몽 저(이상희 감수)
- ④ 미래의 정치 : 윌러 하웨이 저(신상정 감수)
- ⑤ 미래의 교육 : 허친스 로버트 저(임한영 감수)
- ⑥ 법과 인간생활 : 플러튼 L저(이항형 감수)
- ⑦ 인간과 우주 : 켈러 리처 저(권영대 감수)
- ⑧ 인간과 환경 : 뤼브르네 저(유준감수)
- ⑨ 기술과 문명 : 포우브스 R.J 저(전종진 감수)
- ⑩ 새로운 경제 : 로울 에릭저(이석운 감수)
- ⑪ 언어와 인간 : 블랙 맥스 저(박병수 감수)
- ⑫ 위대한 사상 : 애들러 모디머 J저

나. 라이프 베이처 라이프러리,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편저

- ① 동물의 행동 : 틴버거겐 니코해설
- ② 양국 : 레어 윌리해설
- ③ 생태 : 파이브 피터해설
- ④ 사막 : 리어포울드 스타아커해설
- ⑤ 산 : 밀린 로리스 J해설
- ⑥ 원시인 : 하우얼 클라아크해설
- ⑦ 영장류 : 에이머리 새털해설
- ⑧ 포유류 : 카링턴 리차드해설
- ⑨ 지구 : 베이저 아아더해설
- ⑩ 해양 : 앵겔 레너드해설

다. 해외한민교회주 소록 : 김택용 저, 72p.

라. 최신미어속어사전 : 임영재 저, Newweek 297p.

마. 세계예술대백과 : 문원출판사(전 6권)

2. 주석류

가. 플릿창세기 : 보문출판사, 송중섭 역, 573p.

나. 창세기 : 랑게 저(김진홍 역) 백합출판사, 721p.

다. 사무엘상 : 랑게, (배영철 역) 백합출판사 659p.

라. 동관복음 : 칼빈 역, 신교출판사, 592p.

마. 계시록 : 렌스키 역, 배영철 역, 백합출판사, 535p.

3. 기독교윤리

가. 젊은이를 위한 기도 : 바아클레이 윌리암 저, 이봉구 역, 보이스사,

나. 영적 소생 : 케네디 제임스 저, 김형대 역, 생명의 말씀사, 104p,

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 위취만 니저, 생명의 말씀사, 183p.

라. 서로 사랑하라 : 위취만 니 저 생명의 말씀사, 217p

마. 52가지 프로그램 : 버튼 제트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173p.

바. 그리스도를 위해 자녀를 기르자 : 머리 앤드류 저 양은순 역, 생명의 말씀사.

<독서 캠페인>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식하.....
.....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슬.....
.....김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
.....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
.....탔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서 적어도 한달.....
.....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가자는.....
.....의도에서, 금년에도 우리는 이와같이 캠페.....
.....인을 벌입니다.

——「월간충현」 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로이·비·주크 저 / 정 성 수 역

이 책은 현재 미국에서 주로 주일학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침례교 목사 로이·비·주크 박사가 달라스신학교에 제출했던 박사는문으로 기독교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논술한 책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명령한 두가지 사역 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행 1:8)는 전도의 사역과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는 목양(牧羊)사역을 오늘날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명령이기에 이 일은 신자들의 삶의 주업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인 성령을 보내 주시마 약속하셨고(요 14:16)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 주셨다(행 2:1-4).

그러므로 전도와 목양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만 수행 가능한 것이다. 이와같은 양자간의 관계를 성경적인 근거로 잘 조화시킨 것이 이 성령과 교육이란 책이다. 지금까지의 기독교교육이란 대체적으로 성령과 무관하게 일반 학습적 원리에서 주로 다루어지든지 또는 성령은 교육과는 상관 없는 독립적 사역으로서의 성령론을 많이 취급해 왔으나 본서는 양자의 특색을 잘 살리면서 또 조화시켜 주고 있기에 기독교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히 읽어 두어야 할 책이라고 본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독교교육의 4대 요소 즉 성령·성경·교사·학생 중에 성령과 성경을 완전무오하기에 문제는 교사와 학생이라고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세부적으로 잘 다루어 주고 있다.

이 책은 특별히 금년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한 교사 필독서적 중 한권이므로 충현 교회 주일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교사는 이 책을 읽어야 할 필요성(need)보다도 꼭 읽어야(must) 할 책이다.

이 승 근 전도사

(고동부지도·교육위원)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편 31 : 5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자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다윗은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과거에 여러 번 자신을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이제도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사업,

육신의 병,

육신의 위협을 면하기를 위하여 육신을 하나님께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참 보배는 재물보다, 육신보다, 우리의 영혼이 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 진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부탁하는 속결은 신앙생활이 있어야겠습니다.

시편 31 : 8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나를 대적의 손에 금고치 아니 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의 뜻은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나를 원수의 손에 금고치 않고 여러 번 구원하여 주시었는데 지금도 나를 구원하여 자유롭게 하실 것을 믿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물이켜 보면 다니엘은 원수의 손에 희생시키지 않고 시고 그를 좁은 사자의 굴에서 끌어 내서 넓은 바벨론 관도에서 대접받게 하시었습니다.

요셉을 원수의 손에 빠진 그 자리에서 즉 옥중에서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넓은 전 애굽 땅을 출장 다니며 통치하는 국주총리 자리에서 대접을 받게 하시었습니다. 그 기간이 80년간이었습니다.

시편 32 : 6

주를 만날 기회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찌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찌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범람에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바로 활용하는 자

는 매사에 남보다 앞서고 강하여지고 또 성공을 하지만 기회를 놓치면 남보다 밀어지고 약하여 종이 되고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주를 만날 기회』란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로 만날 기회를 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경건한 자’라고 합니다.

경건한 자는 범죄한 후에라도 참 진실하게 회개만 하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께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고, 평안할 때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위하여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영생할 것을 위한 준비가 왜 그리 적은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참 불쌍한 자가 됩니다.

준비한 노아는 홍수가 범람한 때에도 관계치 않은 것처럼 영적으로 준비가 잘 된 사람은 환난과 심판 때에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시편 33 : 1

하나님을 찬송할 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라.』

1. 의인이라야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찬송합니다.

불의한 사람은 즐거워 할 줄을 모릅니다. 돈이나 불의의 권세, 불의한 남녀교제를 즐거움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회개한 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자 즉 바로 살려고 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2. 정직한 자라야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렘 17 : 9) 사람이 정직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가. 이해관계로 거짓말을 하고

나. 자신에게 위협이 올 때에 거짓말을 하고

다. 선전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라. 습관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고

마. 마음이 간악해져서 거짓말을 하고

바. 책임을 지기 싫어서 시치미를 떼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의 아버지는 악마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마의 자식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인격과 지위를 낮추는 일입니까?

정직한 자는 보고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양심 대로 말하고 행한 대로 말을 합니다. 이해관계에 구애를 안 받고 자기가 위험한 일에 대하여 구애를 안 받고 허위선전을 안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참 힘이 들어도 정직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됩니다.

이 원고는 김창인 목사의 시편강해를 출판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구역소식

축하합니다(3월 중 결혼)

- 유미숙양/유용구씨, 한동숙집사 장녀, 6일 오후 6시, 본교회당에서
- 황의만군, 지영순양/황익주씨 장남, 주교교사(종암구역) 4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안석현군/안용결집사, 안윤진권사 3남, 4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김홍식군, 양영란양/대방구역, 정능구역 4일 12시 30분 로얄호텔에서
- 양복만군/양남구씨, 박갑례집사 아들, 8일 오후 1시 행복예식장에서
- 홍영균군/김윤정씨 아들, 11일 12시 영빈관에서
- 백선해양/백성룡목사 장녀, 13일 12시 30분 본교회당에서
- 유국현군, 오윤숙양/유덕영씨 오희명권사 3남, 신촌구역 14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김계호군/김천준장로, 백현옥권사 아들 26일, 12시 본교회당에서

구역장 및 권찰 임명

지난달 다음과 같이 구역장 및 권찰이 임명되었습니다.

• 구역장

- ① 동송구역 황규선 구역장을 동대문구역장으로
- ② 개봉구역장 장귀성 집사 대신 안종욱 집사로

• 권찰

- ① 임경순 집사를 단독 2구 권찰로
- ② 권병선집사, 황성례집사, 이승자씨를 이문구역 권찰로.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1.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랜 염원 속에 시작된 성전건축의 설계가 3월에 마치면서 착공이 되어 금년에 정지작업과 주춧돌 놓는 일까지 하게 될 예정입니다. 매일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히 금년의 파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2. 해외복음 선교회와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계 복음화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6개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 각지역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파송되어 활동하시는 일꾼분의 선교사님, 평신도선교사님들을 위해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3. 북한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 북녘땅 이북 동포들에게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금년들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하루에 두번씩 기도로 후원합시다.

■ 구역장 노트 ■

해외에서의 교회선택 문제

백성룡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의장)

해외이주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교우들로부터 종종 “외국에 가면 어떤 교회를 가야합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이런 문제에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을 구역요원들은 갖고 있어야 한다.

사실 외국에 나가면 그 사정은 여기서 생각한 것과는 판이하게 달라 어떤 교회는 상관할 것 없이 동포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에나 적을 두게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넓은 교당에 가서 찾길에 몇 시간을 소비하면서 나의 신앙생리에 맞는 교회를 찾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뿐더러 향수심에 젖어 있는 터에 교포 한 사람만 만나도 그 속히 위안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일에는 별로 마음쓸 여유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교나 그밖의 이단종파에까지 서슴지 않고 적을 두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교리가 어떻게든 어느 교회든지 다니면 된다는 식으로 지도하는 분들이 혹 있다 해도 우리는 성경을 배운 이상 그리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은 어느 교파에 애착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이는 지상교회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제도와 조직에 따라야 하는 질서의 문제와 그것이 성경도리에 부합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일은 신자의 책임이라는 것과 교리는 신앙양심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 있다.

장로교인이 장로교를 찾아가고, 감리교인이 감리교회로, 침례교회 교인은 침례교회를 찾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또 그리해야만 옳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서로간에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

초대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장로교 지역에 감리교가 들어오지 않았고 감리교구역에는 장로교가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신앙적인 알력을 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서로간에 신앙과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에서 보여준 미덕이었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지역적인 한계는 철폐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 해도 교리상의 문제(칼빈주의 대 알미니안주의)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일방적으로 흡수되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교리문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남을 존중히 여기면서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내 믿음 내가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교파를 알세우는 일이나 본국에서 설기든 교회를 내세우는 일만은 삼가야 할 것이다. 비록 개척교회를 세우더라도 자립할 때까지 혹 어느 교회의 지교회라는 말을 할 수 있겠으나 극히 시한부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다 지교회이며 구교에서와 같이 중앙집권제에 의한 행정력을 구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선교부의 활동계획

- ...◇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해외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어떠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가. ◇...
 ...◇ 그들의 일년 활동계획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홍콩, 서독, 애굽 선교부의 계획을 ◇...
 ...◇ 실는다. <편집자> ◇...

□ 홍콩 선교부(홍콩한인교회)

<홍콩한인 선교사>

1. 한인교회에 대한 활동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교인들에게 교리적인 체계의 확립과 전도적인 사명에 이바지하도록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함.

가. 다양한 성경공부 집회를 가짐.

나. 문제지를 배부하여 시행하는 성경공부를 더욱 강화함.

다. 새신자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힘씀.

라. 조직적인 전도 훈련으로 전도활동을 강화함(안드레아 전도)

2. 재홍콩 한인교포에 대한 활동

가. 홍콩에 오는 교포들이 즉시 교회의 소재를 알수 있도록 교회명이 기입된 거울, 사진 액자를 제작하여 한인 식당, 한인 상점 등에 설치함.

나. 주기적으로 교포들에게 전도지를 우송함.

다. 시공관을 대여하여 9교인초청 음악회를 열어 교민 전도의 기회를 만듦(10월경)

라.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회주보, 전도지, 전도책자를 집중적으로 우송함.

3. 홍콩 토착인에 대한 활동

가. 신앙노선을 같이 하는 토착교회들과 자매관계를 맺어 전도활동에 협조함.

나. 토착교회와 협력하여 신개발지에 건설한 교회 설립에 이바지함.

다. 자선 바자회를 개최하여 구제사업을 통한 전도 활동을 함(12월)

라. 한국인의 이름으로 전도지를 제작하여 배부함.

마. 한국교회와 홍콩교회간의 밀접한 유대를 위하여 교류에 힘씀(상호 초대)

4. 동남아 선교활동

가. 대륙 선교기관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상황을 파악함.

나. 대륙 선교기관의 문서활동에 협조함(재정보조)

다. 대륙선교 자료를 수집하여 본국에 제공함. 선교기관 방문, 대륙 여행자 면담, 각종 문서 수집.

라. 동남아 선교 자료를 수집하여 본국에 보냄. 선교기관 접촉, 문서 수집, 내향자 면담, 현지 방문

마. 동남아 파송 선교사 양성에 협조함.

5. 본국에 대한 활동

가. 육군사관학교 전도에 계속 힘씀(월 HK\$300)

나. 개척교회 설립에 협조함.

□ 서독 선교부(재독한인교회)

<육효기 선교사>

1월: 제직 임명, 개인 상담, 성경교리 공부

2월: 특별 기도회, 개인집 심방

3월: 고난주일, 부활절 예배, 성찬식

4월: 순회예배, 대심방

5월: 어린이 위한 특별 모임

6월: 한독 교역자 친목 및 세미나 개최(제2회)

7월: 야외예배(한인 친목을 위하여)

8월: 수양회 개최(교우들의 신앙훈련)

9월: 대심방, 각 선교회 방문

10월: 잃은 양 찾기 운동, 순회전도

11월: 추수감사절

12월: 성탄절 예배, 한인 초청 새벽예배

□ 중동 선교부(카이로 한인 연합교회)

<이연호 선교사>

1. 언어훈련 하는 일

아메리칸 대학에서 아라비아어를 공부하고 있음.

2. 카이로 한인 연합교회에서 목회하는 일

가. 매주일과 금요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일

나. 등산토건 직원 및 기능공 전원에게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예배를 보아주는 일.

다. 애굽에 새로 오는 분들을 위하여 안내 및 신앙 지도와 생활지도를 해 주는 일.

라. 주간 성경공부만 운영하는 일.

마. 추기 및 춘기 대심방을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매년 2회씩 하려고 함.

3. 원주민을 위한 선교활동

가. 애굽 북읍주의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는 일

나. 애굽 북읍주의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도서관 사서로 봉사하는 일(김신숙 선생)

다. 카이로 한인 연합교회의 사업으로 애굽 민민의 구제와 신학대학생 1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

라. 언어가 숙달되는대로 원주민 선교의 일환으로 알미니아(EL-MINIA)의 사회사업 현장에서 협력하는 일.

마. 애굽 원주민 교회의 초청을 받아 설교하는 일

바. 애굽 북읍주의 총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일.

성어거스틴의 전기와

그의 「참회록」을 읽고

성 기 주
(중동부회원)

단테를 말할 때 「신곡」을, 괴테를 말할 때 「파우스트」를, 존 버너를 말할 때 「천로역정」을 연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거스틴을 말할려면 곧 그의 「참회록」을 말하여야 할 것입니다.

397~398년 사이에 그가 히포교회 감독으로 있으면서 쓴 이 책은 세상에 유행하는 「누구의 참회록」과는 엄연히 다른 「너희는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한 성경 말씀 그대로의 그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생활은 범죄·회개·소망 이 세가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글자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저 고대 유랑 민족 「노마드(Nomad)」족의 피를 받은 결과, 그도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기까지 한 때에는 마니교에서 한 때는 신플라톤의 철학에서, 한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또 한때는 그리스도교에서 이렇게 그는 진리탐구의 유랑자가 되어 마냥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는 한 때 명예와 인기를 얻는 당시의 문명과 교양에 따라 유행가를 읊은 일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속요나 유행가에서 만족할 수 없었으며 육욕과 명예욕이 사람의 참된 진리도 가는 길이 아님을 깨달았읍니다.

「아! 나는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철저히 다 배웠다」 한 파우스트의 고백은 「아! 너는 허무한 이 세상에 단연코 없어지고 말아라」 하는 자살의 결심에 이르기까지 된 자기 불만의 고백이었읍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많은 학문을 배우고 또 그렇게 훌륭한 이름을 차지하였지만 그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참으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참된 것을 찾아 헤맸읍니다.

한 잔 술에 취하여 세상을 잊어버리고 웃음으로 거리를 대활보하는 절인을 보며 한없이 부러워한 일도 있었읍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세상의 괴로움을 잊고 마냥 웃고만 있는 저 절인만도 못하게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란 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으로부터 이 「참회」의 순간이 시작되고 과거라는 것을 완전히 매장하여 영원

한 진리가 주는 새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참회」란 말을 「저은 죄를 회개한다」는 단순한 의미로 해석함보다 이 「참회록」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을 주장하시고 그 신앙으로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서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라 하겠읍니다. 사람은 참회의 심정 없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회는 자기 죄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 죄를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면에 있어서 참회란 우리 믿는 자에게 꼭 필요한 첫번째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의 참회에서 한번도 참다운 참회를 하지 못한 나를 꾸짖으며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30여년 동안 살아온 히포성에서 벽상에 써 붙인 시편 51편을 읽으며 고요히 눈을 감을 때까지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가지고 이 교도와 투쟁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지상의 모든 노고와 슬픔, 미움과 시기, 싸움과 전쟁, 기근과 약탈, 이 모든 것과 싸웠읍니다.

나는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서 어거스틴이라는 한 개인의 지상생활의 시작과 그 경로 그 종말을 본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고 추한 한 죄인을 향하여 얼마나 크신 뜻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읍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가는 참된 자세와 항상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는 겸손, 자기의 온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는 자세, 나의 회개와 감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본원교는 지난해 중원도서관에서 모집한 독후감 감상에서 학생부의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편집자 붙임)

“나는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서 어거스틴이라는 한 개인의 지상생활의 시작과 그 경로 그 종말을 본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고 추한 한 죄인을 향하여 얼마나 크신 뜻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읍니다.”

한스 그리스천이 쓴

『끝없는 가능』을 읽고

김 연 이

(대학부 교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시대마다 기적을 베푸시어 주권과 살아 계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다. 출애굽의 기적들은 우리에게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며 다윗 솔로몬 시대에 별로 베푸시지 않던 기적을 1세기 이후 엘리야 시대에 다시 베푸시고 그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는 기적은 별로 없고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기적을 베푸시고, 인위적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오늘 세계 도처에서 다시 기적을 베풀고 계심을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미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 버림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살아 활동하시는 자들을 눈 앞에 보면서 감사함을 금할 길 없다.

이 책은 단순히 지교회회의 활동상황이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시는 손길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참 모습을 읽을 수 있으며 우리 신앙의 침체되어 있는 깊은 구분을 소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소망과, 성경을 갖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민스크에서 성경을 받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자 그의 두 눈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았고 두볼에 눈물이 흘러 내렸으며 루마니아 교회는 성경을 애지중지하여 한 페이지씩 넘길 때마다 존경의 열을 가지며 수없이 성경에 입을 맞추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나는 그들이 필사의 각오로 성경을 갖고자 하는 소망을 읽으며 나 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동한하며 읽기에 게을렀던가를 하나님과 그들 앞에 부끄럽게 느낀다. 덴마크에 읽지 않은 성경책이 집집마다 있음을 저자가 통탄했듯이 한국에도 성경을 얼마든지 주셨는데 이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나는 이 책에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읽을 수 있었다.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체코에 있는 어떤 노부인은 8일 동안에 어느 가정에 유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고 소피아 시의 한 소녀는 전도 방법을 이렇게 말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느냐에 달려 있죠. 일정한 공식이 없고 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때로는 대답해줘야 할 때도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옥에 가는 것도 무서워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슬기로운 방식까지도 알려 주십니다.”라고 했고 러시아의 한 청년은 “그

려나 그 사람에게도 매우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군요, 만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없이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말이에요, 그들은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년 동안과 영원을 비교해 본다면 그것 감옥이 뭐란 말입니까.”라고 했다 이 사람들은바로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꾸려 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가 감옥에 가서 견딜수 없는 고통을 당할 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생활화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읽으면서 나는 이들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이 이 책을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현신적인 사랑과 회생을 치루는 주의 백성에게 순간 순간 역사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티즈코프 목사님의 9살 먹은 어린 딸의 꿈을 통해서 두 선교사가 올 것을 보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의 아내를 통해서 크리스찬 목사님의 이름까지 알려 주시며 한 소녀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두 선교사를 인도하신다 <오 하나님, 나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서구에서 온 두 사람을 우리의 교회로 인도하라고요.>

이러한 자상하시기도 인자 하신 주의 사랑은 초대교회처럼 수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이 받는 박해나 차별대우를 불평하지 않고 이기심이 없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 저자의 친구 르네는 말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시작했다”고.

캐유코프 박사는 참으로 성자요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이요 부활을 피와 살로 증거하는 자라고 하면서 저자는 이런 것이 기독교라면 우리가 서구에서 유희하고 있는 그 게임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고 한탄하는 의견 속에서 나는 곧 자신을 발견했다. 과연 나태하고 이기적인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 책에서 또한 저자의 순간 순간의 실패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성과 유한성을 본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 피난 자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명령에 복종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이리로 오려 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두려웠다.> 저자의 이 솔직한 고백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주를 위해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너무 아끼고 주님의 손해를 볼 일에 대하여는 양심이 아무런 쉼을 받지 못하면서도 내 인격이나 명예에 손상을 보는 일

에 대해서는 내 양심이 어찌 그리도 민감한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주의 일 하나가 반신 불 수가 된 저자에게 회복불능의 사실을 알고 봉급을 끊어버린 비정의 선교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싸움은 무신론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공산주의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생명을 바치면서 그들의 싸움에 승리하고 있건만 열락과 외설과 안일로 빠져들게 하는 내면적 공세를 받은 우리 자유국가들의 성도들은 영적 싸움에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을 피부로 느끼며 이제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끝없는 가능의 세계로 날아가던 날개를 잡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일한 현실에 젖어보려고 하던 이즈음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주시며 복음전도를 위한 끝없는 가능의 세계를 다시 힘차게 날아 오를 수 있는 날개를 펴게 하셨다. 아이다 스크립니코바의 <우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전체를 뜻하는 분 곧 그리스도에 관해서 결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 고백을 다시 음미 하면서 결코 이 날개를 접지 않으리.

(원집자 불입) 이 독후감은 지난해 연말에 충청도서실에서 실시한 독후감선정에서 일반부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 신앙수필 ■

기도의 응답

조 현 명 장로
(출판위원장)

바울의 편지에는 인사 말씀 다음에 감사와 기도가 따랐다. 바울의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는 디모데의 믿음을 생각하고 감사하였고, 디모데를 다시 만나보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고, 이 사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바울에게 칭찬 받은 유대인 유니게이고, 할머니 로이스도 믿음이 두터운 이였다.

본인에게서는 일생을 새벽기도, 성경, 기도로 보내신 외할머니와 유년주일학교 교사이신 어머니가 기도를 가르쳐 습관화되도록 본을 보여 주셨고, 식사 때의 기도와 저녁 잠자리에 들어갈 때와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날 때에도 부물을 꿇고 베개에 손을 얹고 이마를 대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 주신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그러나 믿음이 독실한 외할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에 돌아가셨으므로 지금 기억에는 할머니 집 뜰의 서양 버드나무 위엔 올라가 놀던 일과 외할머니가 죽은 후 다시 깨어나 '예수 잘 믿으라'고 당부한 말을 전해들음이 있을 뿐이다.

상복(喪服)을 만들고 있을 때 외할머니는 죽음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놀라면서 기뻐하는 가족들에게 죽었던 사람은 몇일 못산다고 하면서,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밧줄로 묶고 넓은 신작로로 끌고 가던 중 홀연히 저 멀리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 마라'라는 소리에 스킨폴러 돌아왔다고 말했다.

외할아버지의 새벽 기도는 통행금지 시간이 없었던 때이고 교회 불을 켜기 1시간 전이었으므로 캄캄한 교회 안에는 때때로 마귀의 시험도 있었다고 말하였다.

일가 친척과 동리 불신자들도 외할아버지의 기도로 '현명이는 복 받아'라고 말해 왔었다.

예녹의 기도로 무드벨라가 969세까지 장수하였고, 그 후손까지 복을 받았고, 모세의 가정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은 말씀을 깨달을 때 가족의 한 사람의 축복이 온 가족의 축복이 된다는 원리를 알게 되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신명기 7:9)

내 어머니가 유년주일학교 교사로서 서기일을 볼 때는 영아부의 출석 통계까지 내고 있으므로, 어머니를 따라 교회 아래 위층을 돌아 다닐 때 영아부 지도로 미국인 중의여학교 선우 리(鮮于 梨, Miss Snook) 교장이 작은 풍금을 타며 '예수님께로 가면 기쁘리다' (지금의 새찬송 590장)를 인도하던 일이 눈에 환하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성취하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니라 「눈을 밝게 해 주옵소서」의 기도이다. 이곳에 사는 학생이 눈이 나빠지자 아버지가 화가 나서 채찍을 들면 피해 달아날 줄 모르고 먼저 벗어 놓은 안경을 찾는 것을 본 나는, 장차 늙어 팔이나 다리를 못쓰는 한이 있을지라도 눈만은 밝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왔으며, 그 후 육의 눈을 밝게 해 주셔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를 없이 해 주신 하나님께, 영의 눈까지 밝게 해 주실 것을 아울러 기원하면서 다음의 성구를 명심하는 바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마태 5:6)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마태 6:22)

성경 전체를 7년 과정으로

매 집회마다 1과씩 공부

○... 구역권찰회(회장: 백성룡 목사)는 작년까지 예배중심으로 모이던 구역예배를 금년부...
○...터는 성경공부 중심의 구역집회에배로 바꾸고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부터 검토하여 오던 것을 금년에 확정·실시하게 되었는데 평신도의 성경공부의 생활...
○...화, 성경지식의 함양의 필요성이 절실하여집으로 취해진 조치이다. 따라서 예년에 구...
○...역감사(장로·교역자) 제도에서 구역교사제도로 바꾸고 이에 필요한 교사를 129명 선...
○...정, 지난 2월 26일에 임명하여 임명받은 구역교사들이 공부를 담당키로 했다. 또한 우...
○...리 교회 구역집회 회집의 특수성(년 7개월 월 2회)에 맞추어 새로운 구역공과의 필요...
○...성을 절감하고 이를 집필, 발간하게 됨으로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 공과...
○...는 전도위원회의 정기성 목사님이 담당하시어 집필을 하게 된다. ...
○... 월간 총현에서는 전교인의 보다 많은 참여와 효과를 위해 매월 구역공과를 게재키로...
○...했다. 이달에는 지난 달(3월)에 이미 공부한 공과도 아울러 실는다. 많은 활용 있으시...
○...기 바란다.

<편집자>...

구역 성경공부 개관

잘 먹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일꾼은 많이 먹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영적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야 한다. 이같은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역을 통한 성경교육을 위한 과정을 마련한다.

1. 성경 교과과정

신구약 66권 전체를 공부하기 위하여 전 과정을 7권으로 나누고 배권을 14과로 편성하였다.

이는 1년에 7개월(3, 4, 5, 6, 9, 10, 11월) 구역집회를 갖고 매월 2회 모여 1회 모임에 1과씩 공부하여 전 과정을 7년에 마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각권의 내용은,

- 제 1 권 축복된 창조(창세기)
- 제 2 권 출애굽(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 제 3 권 약속의 땅(여호수아, 사사기)
- 제 4 권 왕국의 건설(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 제 5 권 시련 속의 왕국(선지서—포로시대까지)
- 제 6 권 예수님의 초림(복음서)
- 제 7 권 그리스도인의 생활(사도행전, 서신들, 요한 계시록)

2. 교안 작성시 착안한 점

- 가. 신구약 전체를 성경본문을 위주로 작성했다.
- 나. 구원사적 입장에서 편성했다(역사적)—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살아 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 다. 성경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다루었다(줄거리 이해를 중심으로)

3. 공부시간의 운영

- 가. 교수시간은 3부분으로 나눈다.

① 숙제검토(10분)

성경본문을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피교육자는 본문숙제를 착실히 하고 교사는 본문숙제를 강의해야 한다.

② 강의(25분)

혹 내용 전체를 소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여러 대지 중에 구역원의 성경지식에 따라 강조할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여 강의를 해도 무방하다.

③ 토의(10분)

4. 교수의 효과

- 가. 성경공부를 하는 것을 생활화시키기 위한 공부이다.
- 나. 성경의 중요한 줄거리를 정리하기 위한 공부이다.
- 다. 구역교우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증진시키는 공부이다.

5. 교수상의 유의점

- 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감화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할 것이다.
- 나. 이 공부를 시작하면 절대로 결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 다. 교사는 개념의우기를 잘 지도해야 한다.

6. 교육 평가

구역별로 1년에 2회 시험을 보고 시상할 수도 있다.

교회는 그 교인들의 믿음의 확신여하에 따라 든든해지고 따라서 믿음의 확신은 성경지식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구역교사들은 이 중대한 사명을 인식하고 직임에 충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구 역 공 과

< 3월분 >

창세기 공부(1장)

제 1 과 천지를 창조하심

읽을 말씀 창 1:1—5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을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신구약 전서는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이 됩니다. 즉 신약은 구약을 근거했고, 구약은 모세오경을 근거했고, 모세오경은 창세기를 근거했고 창세기는 창세기 1장을 근거했고, 창세기 1장은 1절 말씀 곧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주제입니다. 이 창조에 대해 몇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1.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읍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계시되었는데 창조 그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 자신의 능력과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을 주장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의 외로 여기셨습니다. (히 11:19, 롬 4:22)

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역사의 주장자이십니다.

동서양의 많은 철인들이 우주의 근원과 역사의 의미를 찾아 보려고 애를 썼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답을 얻지 못하고 회의 속에 죽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전에는 이 문제의 정답은 누구도 영원히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의 말씀은 우주의 근원, 역사의 근원과 인생의 근

원을 밝혀 주십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위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포합니다 (롬 11:36).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땅 위의 사람들이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주장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이것을 내 것이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우리의 재산도 재능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청지기로 주인되신 하나님을 위해 선용할 것뿐입니다.

2.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읍니다(창 1:3, 6, 9, 11, 14, 20, 24)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되었습니다. 공허와 무에서 유를 생산했다는 그 사실이 놀랍거나 이같은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리하여 저 하늘의 별과 태양 그리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실하신가를 증거하는 증거물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위력이 없고 신실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들은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됩니다.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3.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름답게 창조하셨읍니다(창 1:4, 10, 12, 18, 25, 31).

모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만 선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을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하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아름답고 선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한 것도 하나님의 지배를 떠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선한 것은 추한 것이 되고 축복은 저주로 바뀝니다. 우리의 몸도 돈도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않을 때에 악한 것이 됩니다.

토 의

1. 헌신과 헌금은 어떤 태도로 해야 합니까?
2. 우리 믿음의 근거를 어디로 두어야 합니까?
3. 돈과 이성은 악한 것입니까?

창세기 공부(1장)

제 2 과 사람을 창조하심

읽을 말씀 창 1:26—28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

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하
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
나들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6-28)

만일 사람을 짐승이나 나무처럼 영혼이 없이 창조하
였다면, 아름다운 장미꽃은 무의미하고 간척지를 개간
하여 육토를 만들 주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
나님은 사람 속에 자신의 형상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고 장대한 세계를 감상하며 그것들을 다스리도
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
니다.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창 5:1, 9:6, 약 3:9)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이 있는 육체는
이 영혼이 거하는 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다
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가. 참 지식과 외와 거룩함을 가졌습니다(엡 4:24.
골 3:10).

이것은 영적 특성은 창조하실 때에 받은 것이지만
사람이 범죄 타락하므로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
니다.

나. 자기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이성을 가졌습
니다.

생각하고 판단하여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의지적
행동을 합니다.

다.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고 또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찾게 됩니다.

라. 주인에게 응답할 수 있는 도덕적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옷사람을 공경하며, 아
랫사람을 사랑하는 질서를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마. 불멸의 존재입니다.

모든 육체는 썩어 흩어질 뿐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대로 지음 받은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불멸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람의 영적 특성은 다른 피조물에게서
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2.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피조물은 없습
니다. 『저를 잠간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
과 존귀로 관의우시며』(히 2:7, 시 8:3-8)라고 선포
하므로 사람이 천사보다 나은 위치에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
한 모든 피조물 중에는 면류관과 같이 귀합니다.

3. 하나님의 청지기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
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
리라 하시니라』(창 1:28, 26)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청지기
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땅 위에서 창조활동을 계속하려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결혼제도를
통하여 계속적인 창조의 과업에 동참하며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나.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발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정원지기에게 정원을 맡김과 같이 이 세상이 사람에
의하여 아름답고 쓸모있게 가꾸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연구를 다 살려 폐허된 땅을 개간하고 편리한 기
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전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합니다.

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열등한 피조물들은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
고 보호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토 의

1. 좌절감이나 피로감은 왜 생깁니까?

2. 사람이 그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앞
에 바른 생각입니까?

창세기공부(3장)

구역공과

<4월분>

제3과 아담의 범죄 타락

읽을 말씀 창 3:1-6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
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
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
에 있는 나무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
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
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만물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은 가장 귀한 존재로 두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어서 안될 것을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축복된 규범 안에서 사람을 살도록 하시었습니다(창 2:16, 17; 출 20:1-7). 만일 사람이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자유와 축복이 아니고 구속이 되고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 아담이 어떻게 범죄하였습니까?

죄의 시작은 마귀의 유혹과 사람의 욕심과의 합작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너를 속인 것이겠지,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데, 왜, 네가 자유를 제한받고 살아야 하니”(창 3:4, 5)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무제한의 자유에 욕심이 났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가.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반항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개념에 대하여 이웃간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죄를 말씀할 때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시켜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요일 3:4 롬 2:11-14).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나. 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좇아 범죄하였다면 죄의 자리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젖어 있는 마음이 사람 전체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상이 악하여졌고, 감정이 악하여졌고, 행동이 악하여졌습니다(잠 4:23, 마 5:22, 28).

2. 아담이 범죄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한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왕의 아들의 신분이 거지의 신분으로 바뀌었고(눅 15:11-13) 에덴에서의 행복과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말은 범죄한 사람에게 있어서 양면적인 뜻이 있습니다.

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거절하시기도 하지만

②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뵈움이 부끄럽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물고기나 원숭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다 그 책임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

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도덕적이어서 범죄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뵈움을 뵈울 수 없게 됩니다.

나. 자신이 불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는 불행한 뿐입니다.

① 범죄한 사람의 마음 속에 불안이 생깁니다. 사람의 육체는 것과 밤이 필요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 꿈을 떠난 사람은 생의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사막길을 헤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느낄 때마다 불안·초조·공포·좌절감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스스로 이것을 면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여전히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②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불안은 이웃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아담은 죄의 책임을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하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결국 자기의 죄책을 벗어보려는 노력이 다른 사람과의 싸움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과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③ 범죄한 사람은 영육간에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창 3:19) 하시었고 영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④ 범죄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빛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죄의 수렁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다. 자연과도 불화를 가져 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은 땅은 엉성위를 내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창3:18)고 하여 자연도 사람과 불화를 가져다 줄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3. 아담의 범죄가 후손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한 것은 그의 후손과 뻗 수 없는 관계를 가집니다. 그것은 아담이 법정적으로 인류의 대표라는 점과 또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 출생하였다는 점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한 것은 그의 죄가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어 모든 인생은 법정적으로 죄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유전되어 그 후손들은 죄의 성향을 타고 납니다. 그리하여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인 부패상태에서 스스로 죄를 범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범죄 또는 본죄라고 합니다(롬 5:19).

토 의

1. 범죄 이전의 아담과 범죄 이후의 아담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2. 아담의 범죄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4 과 죄와 죄책감

읽을 말씀 창 3: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창 3:7)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한 사람은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며 사람의 마음에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게 됐고, 이웃과는 협조보다는 분쟁을 생의 방법으로 하게 됐고, 자연까지 사람과 불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셨고, 사람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저야만 했습니다.

1. 죄와 죄책감의 차이

죄와 죄책감이란 말의 뜻이 성경에 보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과하시는 것이고, 죄책감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었을 때에 사람 편에서 느끼는 죄악감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람의 느낌에 관계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죄책감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대개가 죄를 가졌을 때 죄책감을 가지는 데 누구에게나 죄와 죄책감이 경미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맞은 양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죄책감을 무마시키려는 몇 가지 노력들

사람들은 범죄하고도 죄책감을 가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그대로 두고 죄책감만 무마하려는 무모한 노력을 합니다.

가. 죄를 대중화시키려는 노력

“죄가 무엇이 그렇게 나쁜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사는데 죄 안짓는 사람이 어디 있나?”하며 자기의 죄를 대중 속에 은폐하여 죄책감을 면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방법

“물론, 나는 잘못이 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자기의 죄책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다. 선행으로 무마하려는 방법

“나는 어느 정도 선행에 대한 공적이 있으니 이만한 실수가 용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하여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고 죄책감을 무마해 보려고 합니다.

라. 망각의 방법

“나의 실수를 잊어 버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정신 없이 노는 것이 수이다”하고 자기의 죄책감을 잊어버림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입니다.

마. 책임전가의 방법

“그 때 내 형편이 어쩔 수 없었어, 이런 형편에서는 누구도 그 책임을 질 사람은 없을 거야”하며 그 때의 환경 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책감만 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으로 죄책감을 무마되어도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 한 심판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3. 하나님이 죄를 도말해 주시기를 약속하심(창 3:15)

마귀는 사람을 죄악의 사슬에 툇툇 묶어 놓고 영원한 지옥에 가둘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의 사슬에 묶인 사람을 다 해방시키겠다는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 3:15)

하나님이 마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죄악에 가두려는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죄의 사슬에 묶인 사람을 여인의 후손 즉 예수님을 통해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의 수치가 가리워질 것에 대한 예표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창 3:21)었습니다.

한 티끌도 회고 겸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무서운 죄를 옮겨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뿐입니다.

토 의

1. 죄가 있는 사람은 모두 죄책감을 가집니까?
2.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역 공과

<5월분>

창세기 공부(4~11장)

제 5 과 죄의 팽창

읽을 말씀 창 6:1-4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말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나 고대예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는 한 이야기로 연관시켜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어떻게 인간 속에 깊이 파고들어 인간들을 망쳤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4장에서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서는 아벨을 대신하여 낳은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두 조류가 6장에서 합쳐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셋의 후배들도 가인의 딸들의 죄에 빠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노아와 한 식구만 남기고 모든 인생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1. 가인이 아벨을 죽임(창 4:1-15)

아담은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은 꼭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열납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대 가인은 화가 나서 죄에 죄를 더하고 의로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면 제물로 짐승을 바쳤다는 것과 곡식을 바쳤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레 17:11, 히 9:22).

짐승을 잡아 피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다 하여 주를 섬긴다는 뜻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표가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피의 제사를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으로(창 4:7) 아무렇게나 드렸습니다. 가인은 제물로 부차적인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피 즉 생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자 그의 수치를 시기로 바꾸어 의로운 동생을 미워하여 죽이므로 결국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그 후예들은 계속 땅에 속하여 악을 더 하였습니다(창 4:23).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짐 같이 미약했던 죄의 세력은 크게 팽창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경계하여야 합니다.

2.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창 4:17, 21, 22, 창 5:1-31)

하나님은 그의 영광의 계획을 위하여 의인의 그릇으로 순교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습니다(창 4:25) 성경을 주의깊이 보면 셋의 후예들과 가인의 후신양적인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의 후예들의 예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였으나(창 5:22) 가인의 후예들은 땅의 일에 집착하여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나 도구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창 4:17, 21, 22). 이것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경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선택을 잘 하여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3.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패와 심판(창 6:~9:)

『하나님의 아들들』 즉 택함을 받은 셋이 자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 역시 정욕을 좇아 우상숭배자의 딸들을 가리지 않고 아내로 취하였습니다(창 6:2). 그러니 악을 안방으로 끌어들이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니 세상은 쉽게 죄악으로 관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라고 선언하시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계획을 후회하시는 법은 없으십니다. 사람이 다 변하여도 항상 그의 의로운 계획을 펴 나갈 그릇터기는 두셨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때에는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에 의로운 노아를 통하여 종족보존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땅에 기식하는 모든 육체가 대 홍수로 심판을 당할 때 믿음으로만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토 의

1.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떠한가 합니까?
2. 불신결혼이 어떤 면에서 나쁜가?

<꼭 외웁시다!>

- | | |
|-------------------------|---------|
| 1. 만물의 창조..... | 창 1 장 |
| 2.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 | 창 1 장 |
| 3. 인간으로 땅을 지배하도록 명함... | 창 1 장 |
| 4. 에덴에 살도록 하나님의 계획..... | 창 2 장 |
| 5. 인간의 타락..... | 창 3 장 |
| 6. 가인과 아벨..... | 창 4 장 |
| 7. 아담의 족보..... | 창 5 장 |
| 8. 노아의 사적..... | 창 6 장 |
| 9. 홍 수..... | 창 7-8 장 |
| 10. 함의 저주..... | 창 9 장 |
| 11. 바벨탑 | 창 11 장 |
| 12. 아브라함의 부름받음..... | 창 12 장 |
| 13.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 창 13 장 |
| 14. 벨기세대의 기사..... | 창 14 장 |

교회설립 25주년
해외선교 10주년 기념하며

연 6일에 걸쳐 충현 선교대회

서만수·홍종만 선교사 귀국보고
특강, 발제토의, 부흥회 등

교회는 본교회 설립 25주년과 해외복음선교 10주년을 맞으며 그 기념사업으로 오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연 6일간에 걸쳐 충현선교대회를 연다. 모든 조직과 계획을 마치고 그 실행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충현선교대회는 첫째 해외선교의 필요성 인식과 선교적 사명의식 고취 둘째는 해외선교사업에 기도와 물질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권장 셋째 해외선교전략에 대한 정비작업의 계기, 넷째 해외선교사 후보자의 개발 및 헌신과 양성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대회 취지로 삼고 있다.

이번 대회중에는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 홍콩의 홍종만 선교사가 귀국하여 현지보고를 가지며, 또한 선교에 대한 특강, 발제토의, 헌신기도회, 또한 마지막날인 30일(주일)에는 주일학교의 모든 싹교를 「선교」에 관한 것으로 하며 저녁에는 해외복음선교회의 헌신예배로 끝나게 되어 있다.

선교전시회도 열어

또한 이 대회기간 중에는 현재 여섯 곳(인도네시아, 홍콩, 일본, 서독, 이집트, 아르헨티나)의 선교활동에 관한 사진, 현지 지도 및 풍물, 현지 고유문화에 관한 그림, 현지 선교에 관한 참고 자료 등으로 선교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충현교회선교역사의 정리, 기록보관, 충현교회 선교 전략의 구상 등으로 구성된 「충현선교 10년사」를 6월중에 발간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선교사업의 후원을 위해 현재 선교사들의 활동상황을 담은 사진이 담긴 책갈피를 대회기념선물로 전교인과 참석자 전원에게 줄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해외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보다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외선교사업을 하게 되리라고 전망한다.

제1회로 열리는 금년 충현선교대회의 조직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조직>

대 회 장: 김 창 인 부대회장: 최 석 주
추진위원장: 위 영 환 총 무: 정 기 성
서 기: 김 영 휘
회 계: 김성택, 신현상
총무분과: 우성원, 지금산, 유원열
섭외분과: 한경일, 임배주, 성주진
홍보분과: 이창준, 이양우, 노경모
지육분과: 조선근, 김차생, 유미숙

동원분과: 김기정, 김수성, 김정생

<일 정>

- 4월 25, 26일(화, 수) 오후 7:30 선교부흥회 <강사: 정성구 박사>
4월 27일(목) 오후 7:30 현지보고회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홍콩-홍종만 선교사>
4월 28일(금) 오후 7:30 특강
① 한국을 기다리는 선교지역 <손봉호 박사>
② 선교계획과 전략 연구 <하도래 선교사>
4월 29일(토) 오후 7:00 발제토의
① 오늘의 한국교회와 선교문제-김영환 박사
② 충현교회 선교 회고와 전망-홍종만 선교사(홍콩)
③ 선교사후보 양성문제-정기성 목사
헌신기도회(이승근 전도사)
4월 30일(일) 오전예배 선교에 대한 싹교(주교각부)
오후 예배 해외복음선교회 헌신예배(강사: 서만수 선교사)

<선교전시회>

기 간: 1978년 4월 25(화)~30일(주일)
장 소: 충현교회 유치부실
전시내용: 1. 현지선교활동에 관한 사진

2. 현지지도 및 풍물
3. 현지 고유문화에 관한 그림
4. 현지 선교에 관한 참고자료

전시형식: 선교지별 선교관 전시

1. 인도네시아관 2. 홍콩관
3. 독일관 4. 이집트(에굽)관
5. 일본관 6. 아르헨티나관
7. 서울본부관

장학금 지급

장학위원회에서는 78년도 1학기 장학금지급자를 선정, 지급했다. 수혜자는 이양우(입학금전부), 김영휘, 김수성, 김정훈(등록금 전액) 4명이다.

가두전도인 2명 결정

남전도회에서는 가두전도인 2명을 채용하여 가두전도기로 했다. 현재 주교교사이며 신학교에 재학중인 신영권 집사님과 또한 주교교사이며 성경학교에 재학중인 유원열 선생님 두 분이 수교하시기로 했다.

춘계성례식—438명이 서약

78년도 춘계성례식이 지난 3월 17일(세례식), 19일(성찬식)에 베풀어졌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의 인도로 베풀어진 성찬식(19일)에는 1~4부 전체 3,334명이 참여하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회개와 감사, 헌신결심하면서 경건하게 베풀어졌다.

또한 17일에 베풀어진 세례식, 문답식에는 총 438명이 서약을 했다. 서약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남	여	계
학 습	76	114	190
세 례	75	109	184
입 교	6	4	10
유 아	31	21	52
개 종	—	2	2
계	188	250	438

재아중앙교회(아르헨티나) 와 자매결연키로

교회는 지난 3월 30일 정기당회서에 아르헨티나의 재아중앙교회(당회장 김용천 목사)가 청원해 온 자매결연관계를 허락키로 결정했다. 재아중앙교회는 본교회 평신도 선교사 신동수 집사가 주재하고 있는 교회이다.

기도원에 나무심기 작업

4월 5일—남전, 청년, 대학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교회에서는 춘계기도원(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에 나무심기작업을 실시했다. 기도원공사가 거의 끝나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기도원의 환경미화 및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급반 식수에서는 남전도회, 청년부, 대학부회원 120여명이 참석하여 갖나무 4,500그루를 심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기도원은 5월말에 완공하여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

*1978. 3.1현재 (매월 첫 주 기준)

<집 회>					<헌금>					
집	에	구	분	남	여	계	헌	에	I	95,690
		주일	I부	179	310	489			II	294,300
			II부	391	978	1,369			III	267,150
			III부	373	728	1,101			IV	61,968
			IV부	93	188	281			십 일 조	6,801,550
	배	주일저녁	226	403	629	월 정	521,100			
		삼 일	124	277	401	감 사	445,000			
		주	새 신 자	I	26	20	46	생 일	39,000	
				II	19	58	77	경 조	43,000	
			영 아 부	94	84	178	전 축	1,855,848		
유 치 부	89		71	160	특별헌금	28,000				
학	유 년 부		172	162	334	미수및잡수	4,000			
	초 등 부	170	186	356	주 일	새 신 자	3,230			
	중 등 부	183	173	356		영 아 부	36,345			
	고 등 부	172	184	356		유 치	26,650			
	대 학 부	95	100	195		유 년	38,585			
	청 년 부	62	90	152		초 등	32,375			
	교	장 년 부	28	295	323	중 등	54,547			
노 년 부		25	75	100	고 등	62,650				
산업교육부		16	77	93	대 학	76,845				
계	2,537	4,459	6,996	계	10,787,833					

□ 신급별 교인통계 □

남/여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례교인	유 세	학 습	원 인
2,847	2,647/3,947	1,416/2,590	383/305	277/328	571/724

토막소식

*...교회에서는 3월 칠야기도회를 10일 유년부실에서 은혜 중에 가졌으며 3월 첫주부터 저녁 예배 시간을 7시 30분으로 새벽기도회 시간을 5시로 변경하였다.

*...교회는 춘계 대심방을 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 새신자부에서는 교사특별강을 이양우 전도사님을 모시고 새신자부실에서 가졌으며 장년새신자부에서도 이성근 목사님을 모시고 유년부실에서 가졌다.

*...영아부에서는 23일 주기도문 외우기를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으며 26일 부활절에는 달걀선물을 준비했다.

*...유치부에서는 24일 교사기도회를 유치부실에서 가졌으며 봄전체 학생심방을 3월중에 가졌다.

*...유년부는 19일 반별찬송가부르기대회를 유년부실에서 가졌으며 연구수업을 이인실선생(1과)을 모시고 당회실에서 19일 갖고 봄 학생심방결과보고회를 26일 가졌다.

*...초등부는 12일 심방결과보고회를 가졌으며 19일 연구수업과 자체 사두검열을 실시하였다.

*...중등부는 3월중에 반별찬송회를 가졌고 19일에는 병원전도(57후송병원)를 나갔으며 26일에는 찬송가 경연대회를 가졌다.

*...고등부는 5일 교사초청과담회를 4층에서 「능률」이란 주제로 가졌으며 12일에는 연구수업을 26일엔 목요회장 훈련을 가졌다.

*...대학부에서는 11일 반별찬송가부르기대회를 유치부실에서 은혜중에 가졌으며 24일에는 교사학생 합동칠야기도회를 지하실에서 가졌고 봄 학생전체심방을 3월중에 실시하였다.

*...산업전도교육부에서는 26일 시립부녀보호소로 전도를 나갔다.

*...청년부는 1일 백운대에서 산상예배를 가졌으며 12일에는 정성구 목사님을 모시고 헌신예배를 드렸다.

*...장년부에서는 신복운 목사님을 모시고 「종말론」에 대전 특강을 12일 가졌다.

*...노년부는 19일 노년부실에서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가졌다.

전도용 카세트테이프 보급 안내

김창인 목사 설교 녹음

충현교회 충현출판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도용으로 제작된 김창인 목사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 류	보급가격	내 용
90분짜리	900원	설교를 포함한 예배순서 전체가 녹음됨
60분짜리	600원	설교만 녹음됨
녹 음	200원	카세트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녹음만 의뢰할 때

□ 송료는 별도/국내기준—1개 50원

※ 원칙적으로 보급가격은 설교녹음전도를 위한 현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급가격에 구애 없이 설교녹음전도를 위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일가 친척과 친구를 위하여
- 해외에 있는 친지나 성도 그리고 한국인 기술자들을 위하여
- 전후방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
- 벽지의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을 위하여
-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장인 동료들을 위하여
-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위하여
- 교도소 보호소등과 같이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 그리고 메마른 나자신의 심령을 위하여

□ 주문 또는 안내서를 원하시면

100—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36 (전) 27—9937 · 9738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충현출판위원회

편집하고 나서

*...3월호에서 모자랐던 페이지를 4월호에서 채워 36페이지가 됐다. 따라서 이미 실시한 구역성경공부의 공과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구역공과를 함께 실게 되었다.

이 구역공과는 매달 2회분씩 나가게 되어 구역성경공부시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해에 있었던 독후감 감상문 모집에서 일반부와 학생부의 최우수작을 이번 기회에 발표한다.

자라나는 학생들과 온 교우들의 이용을 위해서 마

련된 도서실 이용이 활발해지는 경향과 아울러 좀 더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또한 그것을 발표하여 피차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리라. 매달 「책소개」란을 통하여 소개되는 책들도 좋은 건잡이가 되리라고 본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한다」의 특집에 이어 다음 달에는 「젊은이와 함께 생각한다」의 특집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어머니날이 들어 있는 5월을 앞두고 가정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이번 특집을 계획하였다. 깊은 관심으로 성원있으시기 바란다.

□ 1978년 월간충현 조직 □

충현출판위원회

월간충현분과장/조현명

서기/조선근 회계/배옥인

분과위원/정삼우 이성근 김차생

윤형철 박성수 정은표

이형수 오태용 고제원

이사패

주간/이성근 편집국장/이형수

간사/오태용 고제원

기자/성주진 정윤명 유미숙 홍지향

김인숙

월 간 충 현

4월호

제6권 통권 제52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8년 4월 16일 발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주 간/이 성 근

편집국장/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9738

29—7726(편집실)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 춘계성찬식이 지난 3월 19일 1·2·3·4부 예배시에 배 풀어졌다.



◇ 부활주일 저녁에는 축하음악예배를 제일성가대와 여성성가대가 연합 (지휘 / 김연술, 피아노 / 서은숙, 오르간 / 이승준)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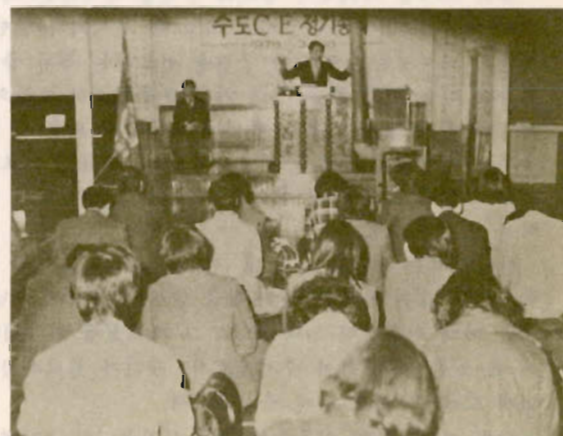
◇ 또한 촛불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은혜받는 시간을 가졌다.



◇ 고난주간을 보내며 중·고등부는 3월 25일 연합으로 「십자가의 증인들」이란 제목으로 연극을 했다.



◇ K B S 텔레비전에서는 3월 24일 당회장 김창인 목사를 윤재전 교수가 인터뷰 「부활의 의미」등을 알아보았다. 이것은 부활절 (3월 26일) 아침시간에 방영되었다.



◇ 지난 3월 18일 수도 CE 정기총회가 우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리교회 김인석 집사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고국과 사랑하는 친척과 친구들을 떠나서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속도 언어도 다른 산설고 물신 이국땅에 온갖 시련과 고난을 각오하고 오로지 주의 복음만을 위하여 가신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성령의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하고 옛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오늘 선교사님들은 평화와 구원을 선포하는 복된 좋은 소식을 전달하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신 분들이오니 그들의 발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정과 생활을 주님이 아름답게 보실 줄 아나이다. 복음의 사신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들이 외로울 때 함께하시고 그들이 낙심될 때 용기를 주시며 그들의 힘이 떨어질 때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고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많은 은혜와 더욱 힘을 굳세게 가지며 주님의 보내신 뜻을 따라 최후까지 노력함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큰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좀더 힘있게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로암
못가에서